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25호 HYUNBULNEWS.COM 2025년 4월 2일(음력 3월 5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의성 고운사 산불 피해 현장 모습. 고운사는 산불로 인해 전각 30동 중 21동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아 있는 범종의 모습이 안타깝다. **사진제공=조계종 기획실**

최악 산불에 천년고찰이 무너졌다

화마에 고운사 연수전 등 전소
전각 30동 중 21동 소실 확인
청송 보광사 만세루 등도 소실
절 지키던 법성사 주지 입적해
성보 이운으로 추가 피해 막아
진우스님 현장 방문, 지원 약속

신중일 · 임은호 · 김내영 기자

최악 산불로 기록될 영남 산불에 천년고찰들이 무너졌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천년고찰 고운사가 화마로 인해 잿더미로 변했고, 의성·청송·안동 지역의 고찰도 피해를 입었다.

조계종 총무원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3월 27일 현재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찰은 의성 고운사·운람사·만장사, 청송 수정사·보광사, 안동 용담사이다.

의성 고운사는 3월 25일 오후 4시 50분경 강한 바람을 타고 넘어온 비화(飛火)로 인해 30동의 건물 가운데 21동이 전소됐다. 소실된 전각 중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가운루와 연수전이 포함됐다.

의성 고운사는 화마가 덮치기 전인 3월 24일 이동이 가능한 불상, 불화, 고서 등 비지정 유형문화유산을 영주 부석사 성보박물관으로 이운했다. 소장 중이었던 보물 석조여래좌상도 3월 25일 오후 3시 30분 경 안동청소년문화센터로 옮겨 피해를 막았다.

앞서 의성 운람사는 3월 23일 확산된 산불로 모든 전각들이 소실됐다. 이번 화재로 전각과 부속 건물 7개동이 모두 불에 탔고, 주변 산림도 큰 피해를 입었다.

운람사 대중스님과 신도들은 불길이 운람사를 덮치기 전 아미타삼존불, 탄생불, 신중탱화 등 불교유산을 조문국박물관으로 긴급 이송해 옮겨 추가 피해를 막았다.

청송 보광사는 경내 전각인 만세루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보광사 만세루는 조선 세종이 부사 하담(河澹)에게 명해 건립한 청송 심씨 시조인 심홍부의 묘재각(墓齋閣)이다. 월막리에 15세기 건립된 찬경루와 같이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다행히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보광사 극락전은 화마를 피했다.

의성 만장사는 3월 26일 전각 7동 중 5동이 전소됐으며, 나머지 두 동의 건물도 크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유형문화유산인 석조여래좌상은 방염포로 포장해 일부만 훼손됐으며, 소장 불상 2점은 군청 관할 박물관으로 이운됐다.

안동 용담사의 무량전(경북도문화유산자료)과 용담사 금정암 화엄강당(경북도문화유산자료)은 소실됐으며, 통일신라 석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던 의성 관덕동 석조보살좌상(경북유형문화유산) 또한 전소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조계종은 화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의성 산불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성보 이운 현장 지휘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 중앙종회 문화분과위원회 오심 스님, 문화부장 혜공 스님,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장, 장정화 전 대한불교청년회장과 함께 3월 26일 7시 30분 의성 고운사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진우 스님은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만나 고운사의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산불 진화에 노력 중인 유관기관과 사찰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진우 스님은 "화마로 인하여 희생된 분들에 애도를 표하며 정부와 국가에서도 비상사태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산불로 망실된 사찰과 문화유산이 복구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뿐 아니라 종단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산불에 사찰을 지키던 스님이 화마에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이어졌다. 법화종 등에 따르면 경북 영양군 석보면 법성사 주지 선정 스님이 소사 상태로 발견됐다. 3월 25일 오후 5시 40분쯤 산불이 석보면으로 확산됐고, 영양군은 주민에게 대피할 것을 알렸다. 하지만 선정 스님은 법성사 대웅전 옆 건물에서 입적해 있었다. 〈관련기사 3면〉

로터스월드 현대불교신문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이웃 행복이 나의 행복 세상에 진 빚 보시로 회향"

강금자 코끼리부동산 대표 후원
뚜카사리 사원학교에 4기 완공
재학생 294명 · 주민 1000명 혜택

"누구나 세상 살면서 빚진 것 하나 없겠습니까. 그 빚은 보시로 어려운 이웃들 도우면서 갚아가야죠. 이웃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지니까요."

강금자 평택 코끼리부동산 대표의 온정이 또 한 번 미얀마의 맑은 물길을 열었다. 이는 로터스월드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한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의 4번째 성과다.

이번 정수시설은 미안마 양곤 사우스 다곤 지역의 뚜카사리 비구니 사원학교에 지어졌다. 이제 이곳 비구니스님과 학생 294명, 마을주민 1000여 명은 강금자 대표의 후원 덕분에 더 이상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

강 대표가 처음 정수시설 후원을 결심한 것은 2019년, 아버지를 떠나보낸 직후였다. 평소 신심 깊은 불자인 그는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불교 언론을 통해 정수시설 사업을 접했다.

강 대표는 "아버지가 생전에 참 고생하셨는데, 나라도 뭔가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수시설 지원 사업을 보았을 때, 대중에게 꼭 필요한 일이자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 후 강 대표는 매년 상·하반기마다 두 곳씩 꾸준히 정수시설을 후원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말들이 후원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됐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보다 남을 돕는 것이 훨씬 기쁘고 보람됐다"며 "누군가에게 보시를 베풀면 결국 그 보답이 나에게도 돌아온다. 남들 눈에 이상하게 보인데도 상관없다. 남을 도우면서 나도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보시에 대한 남다른 철학도 갖고 있다. 그는 "우리는 셀 수 없는 과거 생에서 수많은 업을 지었다. 그렇기에 가만히 앉아서 '복을 달라'고만 할 수 없다"며 "내가 먼저 좋은 일을 하면 내 마음도 편해지고, 결국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나눔 실천은 일상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사무실 한편에 '불우이웃돕기 상자'를 마련해 두고,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도 보시의 기회를 권유하고 있다. 강 대표는 "누군가에게 복을 지을 기회를 만드는 것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해주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의 목표는 70세까지 꾸준히 공덕을 쌓으며 하루하루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죽어도 후회하지 않도록 살자. 이것이 내 인생 철학입니다. 돈을 아끼기만 한다고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김내영 기자**



뚜카사리 비구니 사원학교 스님과 학생들이 정수시설을 통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다.

SEOUL
INTERNATIONAL
BUDDHISM
EXPO
2025. 4. 3(목) – 4. 6(일)
서울 강남 COEX전시장 C홀

★ 히든 담마(Hidden-Dhamma)챌린지 ★
너의 깨달음을 찾아라! 부디즘 어드벤처@코엑스
바른 견해(정견) Right View
바른 생각(정사유) Right Intention
바른 언어(정어) Right Speech
바른 행동(정업) Right Action
ACTION
바른 생계(정명) Right Livelihood
바른 노력(정정진) Right Effort
바른 기억(정념) Right Mindfulness
WISDOM
바른 삼매(정정) Right Concentration
팔정도 · The Eightfold Way
4월 코엑스에서. 8장의 팔정도 카드를 모아 나만의 깨달음을 찾는 특별한 퀘스트에 참가해보세요!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주관 불교신문 기획·운영 MIND DESIGN 문의 02-2231-2013

멸빈자 사면 종헌 결국 부결…팔공총림 해제

조계종 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

3월 26일, 하루 회기로 열려
원로회의 의원 보광 스님 추천
호계원장 정묵 스님 만장일치
2025년도 추경 383억원 승인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재적인원 81명 중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3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를 개원했다.

산불 확산으로 인한 종단 상황에 따라 이날 중앙종회는 종회 개회 후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을 조정해 하루를 회기로 진행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개회사에서 먼저 대형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4월 1일 조직 개편을 앞두고 이날 임시회에서 안건 하나하나를 대하는 데 있어 절차탁마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 지역 현장 방문으로 회의에 불참한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종단의 역사적 상흔을 보듬고 화합의 모범으로 혼란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상생의 기운을 불어넣어야 할 때"라며 "문수의 지혜로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멸빈자 사면 종헌 개정안 부결

조계종단 및 승가의 대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멸빈자 사면 종헌 개정안은 결국 부결됐다.

중앙종회는 제233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첫 안건으로 멸빈자 사면에 대한 종헌 개정안을 논의했다. 총무원장이 제출한 종헌 개정안과 종회 차원에서 발의한 종헌 개정안 두 건이 함께 올라왔으나, 종회의원 발의 종헌 개정안을 철회한 후 총무원장 제출 종헌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가 진행됐다.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994년 종단개혁에 따라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사면을 통해 종단 및 승가의 대화합을 도모하고자 함'을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투표결과, 73명 의원이 투표해 찬성 31표, 반대 42표로 개정안이 부결됐다.

팔공총림, 총림 해제

팔공총림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총림에서 해제됐다.

팔공총림 해제 건은 제9교구본사동화사특별감사위원회 감사 보고 이후 재안 스님의 대표발의자로 긴급발의 형식으로 상정됐다. 이어 투표가 진행으며 73명의 의원 투표 결과 찬성 50표, 반대 23표로 해제가 가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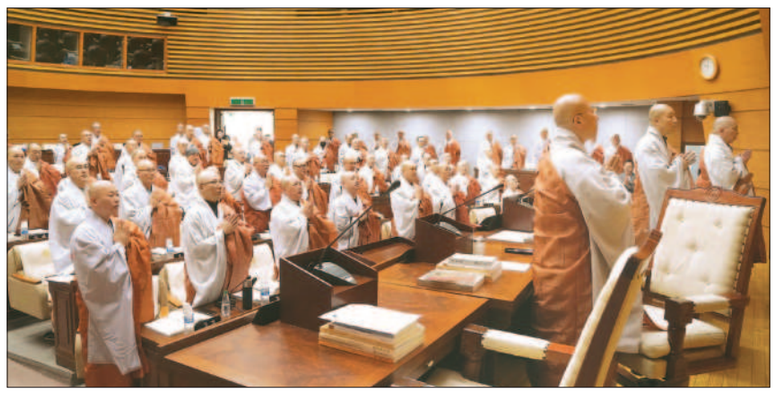
팔공총림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특별감사에서 회계관리와 원 운영 등에서 다량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선원과 강원, 율원 등 총림 구성 요건을 충실히 갖추지 못했다. 대표발의자 재안 스님은 "감사 결과 재정상 문제점이 발견됐고 율원과 염불원이 1년 이상 운영되지 않는 등 총림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특히 말사 주지스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 안건이 발의되자 동화사 종회의원 호암 스님은 "이번 감사는 표적감사"라고 반발했다. 진화 스님도 "현재 총림 요건을 갖춘 곳은 해인총림과 영축총림 뿐"이라며 "총림의 상징성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수의 스님들이 총림해제 표결을 요구하자,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해제 건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결과 찬성 50표, 반대 23표로 총림해제 건은 가결됐다.

투표에 앞서 제9교구본사동화사특별감사위원회 위원장 각진 스님은 특별감사에 대해 총평했다. 총평에 따르면 기본적인 종무행정에 있어 미비한 점이 다량 확인됐다. 또 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찰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 진행 미비, 본사 종무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회계관리 부분에서도 계획 및 증빙자료 없이 무분별하게 지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각종 인사안건도 처리

이번 중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인사안건도 처리됐다.


조계종 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3월 26일 하루 회기로 개원, 20여 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에는 보광 스님이 추천됐다.

보광 스님은 1970년 분황사에서 도문 스님에게 사미계를, 1980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에게 구족계를 수지했다. 2023년 4월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현재 정토사 회주이자 대각사상연구원 대표다.

제21교구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에 현묵 대종사를 추대했다.

방장은 종헌 제105조 제1항 및 총림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산중총회에서 추천해 중앙종회에서 추대한다. 3월 6일 송광사 자재원에서 개최된 산중총회에는 구성원 총 315명 중 217명이 참석했으면 만장일치로 방장 후보자로 현묵 대종사를 선출한 바 있다.

현묵 대종사는 1972년 구산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1976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2023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제12대 중앙종회의원, 원효사 주지, 고불총림 선원 한주, 덕숭총림 선원 한주, 조계총림 선원 유나와 선덕을 역임했다.

신임 호계원장에는 동국대 불교학원장 정묵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함께 후보로 오른 진화 스님은 투표 직전 후보자를 사퇴하면서 투표 없이 정묵 스님이 선출됐다. 진화 스님은 종단 화합과 결속을 위해 고심 끝에 사퇴한다고 밝혔다.

정묵 스님은 "종헌종법에 따라 공명정대한 호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묵 스님은 1976년 수덕사에서 법성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1979년 성재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역경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조계종 호법부장에는 도심 스님이 임명 동의를 얻었다. 호법부장은 종헌 제36조, 제52조와 중앙종회법 제2조, 총무원법 제22조에 의해 중앙종회의 얻어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호법부장 임명 동의를 얻은 도심 스님은 1999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2005년 송광사에서 보성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성불사 주지이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계법 개정안 원안 통과

정운 스님이 대표 발의한 법계법 개정안이 원안 통과됐다.

법계법 제5조 '9인의 법계위원'을 '비구 법계 심사는 9인의 법계위원으로 비구니 법계 심사는 12인의 법계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원안 통과에 따라 '종사급 이상 비구 중에서'를 '종사 이상 비구 9인, 명덕 이상 비구니 3인을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한다. 또한 비구니 법계위원은 명사 특별전형 심사에 한해서 권한을 가진다.

지금까지는 명망 있는 원로 비구니스님들이 명사 법계를 품수하는데 있어 9인의 비구 법계위원 스님만으로 심사해 해당 비구니스님들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법계법 개정안은 명사 특별전형에 한해 비구니 법계위원 3인을 추천해 비구니 법계심사에 참여시키고자 제안됐다.

2025년 추경 383억 승인

조계종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추경 예산으로 382억 5410만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은 2025년 대비 동결 편성됐다. 다만 2024년 일반회계 결산 사항을 일부 반영해 전년도이월금 2025년 예산 대비 약 66억 7000만원이 증액됐다.

4월은 '불교의 달, 마음 평안의 달'

"조계종이 희망의 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계종(총무원 진우 스님)이 4월 1일부터 5월 5일 부처님오신날까지 기간을 '불교의 달, 마음 평안의 달'로 정하고 국제선명상대회,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연등회 등의 대규모 행사를 연이어 개최해 불자와 국민 마음에 평안과 위안을 전한다.



광화문 봉축점등식을 시작으로 서울 전역에 거리 연등불이 켜지면 행사는 조계사를 중심으로 한 종로 광화문 권역과 봉은사를 중심으로 한 강남 코엑스 권역에서 진행된다. 서울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에서 개최되는 만큼, 가족 나들이나 데이트 코스로도 손색없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세대와 성별을 떠나 누구나 불교를 더욱 가깝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선명상 및 간화선 화두 체험, 사찰음식 체험, 전통 불교예술 및 불교 굿즈 전시, 강연 및 법문 등이 마련돼 있다.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일상의 여유와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전국 57개 사찰에서 선명상 템플스테이 특별주간이 운영된다. 4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2030 청년세대 2500명을 대상으로 1만원에 템플스테이를 제공한다. 02-2011-1723

임은호 기자

교육원장 범해 스님·포교원장 선업 스님 퇴임

3월 26일…200여 명 동참
발자취 돌아보는 영상 시청

조계종이 오는 4월 1일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이라는 삼원체계에서 총무원 일원 체계로 개편을 앞두고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이 소임을 마무리했다.

조계종은 3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10대 교육원장 범해 스님 및 제9대 포교원장 선업 스님' 퇴임식을 거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교육원 산하 기관 관계자, 포교·신행단체 임원진, 총무원 교역직 스님과 종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퇴임식은 승가교육에 매진한 범해 스님과 포교·전법에 헌신한 선업 스님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영상 시청으로 시작됐다.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퇴임사에서 종단 승가교육 중심에서 수행과 교학이 조화를 이루는 승가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역대 교육원장 스님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범해 스님은 "앞으로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중심으로 종단의 뜻을 모아 미래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승가교육 불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께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저는 이제 산중으로 돌아가지만, 늘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정진하겠다"고 인사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GO! 전법.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슬로건으로 포교활동에 전념했던 제9대 포교원의 활동을 소개했다. 선업 스님은 "포교원은 젊은 불교, 힘한 불교의 흐름을 이어 나가면서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고자 정진했다"며 "이 모든 과정이 가능했던 것은 사부대중 여러분의 깊은 신심과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원활한 포교원 운영을 지원하며 곁에서 큰 힘이 되어준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혜안 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범해 스님은 승가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선업 스님은 포교·전법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각각 종정상을 수상했다.

김내영 기자

창종 제66주년을 축하합니다

경 대한불교총화종 창종 제66주년 기념 법회 봉행 축

대한불교총화종은 부처님의 근본 교리를 구체적으로 널리 전파하고 석가세존(釋迦世尊)의 교리(教理)를 봉체(奉體)하며 대중행원(大衆行願)과 육화정신(六和精神)을 닦아 생활(生活)과 직결(直結)된 대중(大衆)을 현대불교(現代佛教)의 구현(具現)으로 안심입명(安心立命), 광도중생 · 보국안민(廣度衆生 · 報國安民)함을 목적(目的)으로, 태고 보우국사(太古 普愚國師(1301~1381))를 종조(宗祖)로 1960년 4월 15일 초대 종정 추강(秋岡) 최득연 큰스님과 초대 총무원장 법사(法師) 신종원 큰스님에 의하여 창종을 하였으며 불기2569(2025)년 현재 창종 제66주년을 맞아 창종법회를 봉행 하오니 법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종 제66주년 기념 법회 봉행 일정

- 일 정 : 불기2569(2025)년 4월 17일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전 화 : (043)745-4508, 총무부장 법장스님 010-5436-2740
- 장 소 : 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정죽촌로454-86(죽촌리341번지) (사)대한불교총화종 총본산 실상사

社團法人 大韓佛教總和宗 總務院長 慧覺

“조속 진화 기원·복구 지원에 최선”…불교계 한목소리

3월 26일 진우 스님 담화문 발표
중앙종회, 임시회서 호소문 채택
천태종·태고종도 “물심양면 지원”

신중일 · 임은호 · 김내영 기자

3월 21일 의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며칠째 이어지며 고운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이 전소된 가운데 불교계가 조속한 진화와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에 힘 모을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26일 발표한 전국 산불 확산에 대한 조계종 담화문에서 “영남 북부 지역을 휩쓸고 있는 화마로 우리 종단의 16교구 본사이자 천년고찰인 고운사를 비롯해 운람사 등 여러 사찰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산불 피해 사찰들이 다시금 법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우 스님은 “국가유산청 등 정부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동이 가능한 성보들을 선제적으로 이운해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있다. 문화유산 보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생명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 당국에서는 인력의 구조와 진화대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고, 재난 지역의 사찰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우리 종단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재난에 대한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을 더욱 세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길 기원하며, 산불 진화 이후 유관기관과 함께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조계종 중앙종회도 제233회 임시회에서 전국적 산불로 인한 국가 재난사태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채택했다. 중앙종회 의원들은 호소문에서 먼저 산불 피해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고 다치거나 순직한 소방관과 희생자들의 빠른 치유와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안동 봉정사를 찾은 진우 스님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화재 방지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기획실

천년고찰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의 주요 전각들과 운람사를 비롯한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참담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한 이들은 “우리나라 소중한 전통과 역사를 지켜온 문화유산이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산불 피해 수습과 복구에 함께하고자 한다”면서 “중앙종회는 산불 피해 복구와 원상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불교계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3월 27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산불 재난의 조속한 종식을 기원했다. 덕수 스님은 “이번 산불로 수많은 국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천년고찰을 비롯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됐다. 무엇보다 화마를 피하지 못한 국민과 산불 진압에 나섰던 20여 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천태종은 300만 종도와 함께 이번 산불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덕수 스님은 이어 “혼란한 정국 속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로 전 국민이 불안한 마음에 휩싸여 있다.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면서 “천태종도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사찰의 신도들과 함께 물심양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3월 2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산불의 피해 회복에 마음 모을 것을 당부했다. 상진 스님은 “재난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돕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태고종은 이번 재난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이 다시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들의 안정된 일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태고종은 산불 수습이 이뤄지는 대로 피해지역에 긴급구호품과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화마에 성보유산 지켜라”…발빠른 이운, 피해 막았다

사찰 · 국가유산청, 소산 작업
봉정사, 부석사 등 불상 불화
박물관, 지역 기관에 이운해
석불, 석탑엔 방염포 작업도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이 봉정사 불교문화유산들을 안전지대로 이운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유산청

화마에 불교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불교계와 문화유산 당국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 등 지역 사찰과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산불이 확대된 3월 25일부터 중요 동산문화유산들을 안전지대로 소산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3월 27일 현재 사찰 및 종가 소장 문화유산 23건 1566점에 대한 소산 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이운이 어려운 석탑과 석불 등에는 산불로부터 보호하는 방염포 포장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안동 봉정사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목조관음보살좌상, 영산회 괘불도, 아미타설법도는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로 급히 이운됐다. 시도유형문화유산 봉정사 소장유물 책판 12종 60점, 탱화 2점, 고승진영 9점은 예천박물관으로 보내졌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은 무진동 차량 2대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성보유산들을 옮겼다. 다만, 무게가 많이 나가는 대웅전 벽화나 일부 보물은 봉정사 유물전시관인 성보관에 보관 중이다. 봉정사의 성보관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조성돼 약 12시간 정도 화염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산불 북상으로 영주 부석사도 3월 25일부터 방화선을 구축하고 성보유산들을 이운하는 등 본격적인 화재 방재 작업에 들어갔다. 보물 영주 부석사 고려목판 3종 634점과 영주 부석사 오불회 괘불탱은 영주 소수박물관으로, 시도유형문화유산인 영주 부석사 조사당 목조의상대사좌상은 된장체험단지로 각각 이운됐다.

보물 경북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갈안초등학교로, 복장유물(발원문 1점, 묵서편 1점, 저고리 1점, 후령통 일관 5점)은 안동시립박물관에서 이운·보관됐다. 보물 영덕 장륙사 건칠관음보살좌상·영산회상도·지장시왕도는 영해면사무소로 이운됐다.

시도유형문화유산 안동 봉황사 삼세불화·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목조삼전패는 세계유교문화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의성 옥련사·지장사·대곡사·운용사, 안동 용담사·봉황사·선찰사, 청송 대전사·대원사·보리수 선원 등도 주요 성보들을 안전지대로 이운했다.

보물 연수전 등 전각 21동이 소실된 의성 고운사는 화마가 덮치기 전인 3월 24일 이동이 가능한 불상, 불화, 고서 등 비지정 유형문화유산을 영주 부석사 성보박물관으로 이운했다. 소장 중이었던 보물 석조여래좌상도 3월 25일 오후 3시 30분 경 안동청소년문화센터로 옮겨 피해를 막았다.

사찰이 전소된 운람사와 전각 5동이 소실된 만장도 주요 성보들을 인근 박물관으로 이운해 화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했다.

울주군 산불이 확산되며 부산 기장군 소재한 사찰들도 발빠르게 대응했다. 기장 장안사는 급히 경내에 있는 문화유산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신중일 · 하성미 기자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자비의 손길을”

본지 · 아름다운동행, 긴급모금
산불 재난 · 문화유산 복구 지원

3월 21일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영남 북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삽시간 번지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한순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5000여 명의 이재민들은 집을 떠나 체육관, 학교 강당 등으로 긴급 대피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기본적인 생필품과 식료품조차 불길에 휩쓸려 버려 입을 옷도, 먹을 음식도, 잠잘 곳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과 본지는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모금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 모금은 4월 30일까지 이어지며 모금액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과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 복구에 쓰여질 예정이다.

홈페이지(dreaminus.org) 참조. 농협 301-0137-6667-11(예금주:아름다운동행) 02-737-9595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피해복구와 이재민을 지원하는 한편 긴급 모금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온라인 기부는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하다.

하나은행 271-910006-64104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02-6334-2206

국내 유일 재난사회복지전문기관 **더프라미스**는 3월 23일부터 경남 산청군 및 경북 의성군 일대 산불 피해 현장에 긴급구호팀을 파견해 아동·청소년 및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한 긴급 모금도 진행 중이다. 모연금은 긴급 물품 지원과 향후 아동들의 학교 복귀와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정서 안정 프로그램 등에 쓰인다.

신한은행 140-011-038160(예금주: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02-735-3119

특히 스님들의 경우 불길을 피하느라 여분의 승복을 챙기지 못한 채 긴급대피해 승복이 절실한 상태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불교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된다

국가유산청 3월 21일 지정 예고
불교사상 기초 조리한 채식 특징
"현재도 사찰서 전승" 높이 평가
조계종 "한식 발전에 기여" 환영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울 진관사 사찰음식.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한국불교만의 생명존중사상이 담긴 식문화인 '사찰음식'이 신규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불교 생명사상을 기초한 음식인 '사찰음식'을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3월 2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사찰음식'은 '불교의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으로, 스님들의 일상적인 수행식과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식사법을 포괄한다. 사찰마다 다양한 음식이 전승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불교 사상에 기초하여 육류와 생선, 오신채(마늘·파·부추·달래·흥거) 없이 조리하는 채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사찰음식'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식문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 고려시대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목은시고(牧隱詩藁)〉와 같은 문헌에서 채식만두와 산갓김치 등 사찰의 음식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묵재일기(默齋日記)〉 〈산중일기(山中日記)〉의 기록을 통해 사찰이 두부, 메주 등 장류와 저장 음식의 주요 공급처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대부가와 곡식을 교환하는 등 음식을 통해 민간과 교류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은 불교 전래 이후 발전해오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불교의 불살생 계율과 생명 존중, 절제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해 고유한 음식문화를 형성했다"면서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조리 방식과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하고, 사찰이 위치한 지역의 향토성을 반영하는 등 타 국가의 사찰음식과 차별화된다"고 높게 평가했다.

다만, 각 사찰마다 다양한 조리법이 이어져 오고, 스님을 중심으로 사찰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전승체계를 이루고 있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사찰음식'의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 지정예고에 조계종 문화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문화부장 혜공 스님, 사업단장 만당 스님 명의의 환영 논평을 통해 "'사찰음식'은 생명 존중과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며, 생명존중과 소욕지족(少慾之足)을 지향함으로써 물질적 풍요와 영양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음식문화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또한 '사찰음식'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진우 스님 "불교 바로 알고 전법해야 불교 위기 극복"

'포교·신도단체장 워크숍' 법문
"분별 업 소멸하면 삶이 평안"
각 단체 주요사업 · 로드맵 공유


조계종 포교 · 신도단체장 및 임원 워크숍'에서 각 단체는 주요사업 및 로드맵을 공유했다.

"괴로움과 즐거움, 행복과 불행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행복하면 괴로움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바로 이해하고 불교를 전해야 한국불교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진우 스님은 3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 '2025년도 조계종 포교·신도단체장 및 임원 워크숍'에서 탈종교화, 불자 감소 등 한국불교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먼저 사람들은 행복해지면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 착각하지만, 행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응하는 괴로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진우 스님은 "이러한 작용을 '분별' 또는 '업'이라고 한다. 이 분별의 업식을 소멸해야만 인과의 윤회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분별 업식이 있는 한 좋고 싫음은 계속되고, 육도윤회도 찰나마다 반복된다"며 "이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스스로 잘 이해해야 상대를 잘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진우 스님은 "우리가 바른 수행과 가르침을 통해 포교에 힘쓴다면, 불자들이 늘어나고, 사회도 더욱 평안해질 것"이라며 "불교를 한국 사회의 정신적 기반으로 굳건해지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의 특강에 이어 포교·신도단체별로 주요사업 및 로드맵을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중앙신도회,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체육인불자연합회, 경제인불자연합회, 조계종산악회, 서울교통공사법우회, 불교차인중앙회, 예비역장성불자회, 포교사단, 국제포교사회, 불교상담개발원, 전국여성불자회, 파라미타, 동련,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좋은벗 풍경소리, 불교스카우트연맹, 교법사단 순으로 올해 핵심사업을 발표하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공동선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4월 1일 시행을 앞둔 총무원·교육원·포교원 일원화와 관련해 종책기조와 조직 변화,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따르면 종단은 포교를 제1과제로 삼아, 포교부 산하단체를 적극 지원한다.

김내영 기자

돈관 스님 "자기 자리서 주인공돼라"

동국대, 정각원서 개강법회
'동국바라밀'을 주제로 법문



"동국바라밀의 답은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됐을 때 동국대의 건학이념, 이상세계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3월 25일 교내 정각원에서 개강법회를 봉행했다.

법회 증명법사로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법상에 올랐으며, 스님은 '동국바라밀'을 주제로 법문을 설했다.〈사진〉

이날 돈관 스님은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에게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 임제 선사의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어록을 인용한 돈관 스님은 "임제 선사의 말씀처럼 자기 자리에서 주인공이 돼야 한다. 스스로 주인공이 됐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의 길"이라고 설했다.

이어 스님은 "해봉당 자승 대종사께서는 2021년 건학위원회를 발족하며 '동국발전 불교중흥'이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이를 보면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동국의 자랑이고, 부처님"이라며 "법회에 온 모든 분들이 스스로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되새겨 보길 바란다. 그리고 동국발전과 불교중흥을 이끄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봄을 맞는 동국인들은 불성(佛性)의 씨앗을 자기 마음 속에 꼭 뿌렸으면 한다"며 "학교 오면 합장하는 버릇을 들이고, 팔정도 광장 부처님께 합장 삼배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한다. 행동을 지속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된다. 동국대에서 훌륭한 불성을 가진 불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 2주년…'전법' 재다짐

사)상월결사, 3월 23일 기념법회
'문화법회' 대학생 전법 사업 공유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 2주년을 맞아 사부대중들이 인도순례의 의미와 감동을 되새기는 한편 부처님 법 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사단법인 상월결사는 3월 23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 및 전법선언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사단법인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은 대학전법을 위한 동아리 지원금 전달, 구역 문화법회 등 자승 스님의 유지를 이어받는 사단법인 상월결사의 활동을 안내하면서 "많은 이들이 동참해 상월결사가 이 시대 불교정신, 전법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은 2023년 2월 9일 인도순례를 떠나는 순간을 회상했다. 이어 "우리가 원력을 세워 한국불교 중흥, 대학생 불교 활성화를 위해 담금질 과정을 잘 거쳐야 한다"면서 "상월결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원력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단법인 상월결사는 5월 10일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문화법회를 봉행한다. 문화법회는 5~6월 대구와 구미, 논산, 부산 등에서 이어진다. 11월 11일에는 위례 상월선원에서 정진법회가 봉행될 예정이다. 상월결사는 자승 대종사의 마지막 유훈인 대학생 청년 전법에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태고종 호법원장에 구산 스님 선출

3월 26일 중앙종회 임시회서
선관위원장에 정운 스님 임명



태고종 제5대 호법원장에 구산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3월 26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 제153회 임시회를 열고 호법원장 선출의 건 등을 다뤘다.

호법원장에는 제4대 호법원장 혜일 스님과 선거관리위원장 구산 스님이 후보로 출마해 경선으로 진행됐다.

재적의원 59명 중 5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개표결과 기호 1번 혜일 스님이 15표, 기호 2번 구산 스님 41표를 받아 구산 스님이 제5대 호법원장으로 선출됐다.

선출 직후 구산 스님은 "종단 사법질서 확립과 종도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정의롭고 따뜻한 호법원을 만들겠다"면서 "앞으로 격려와 쓴소리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구산 스님은 총무원 경호부장과 호법위원, 규정부장, 충북교구종무원 제천분원장, 제12·13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신임 호법원장의 공식임기는 4월 17일부터지만 공백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종회는 선출시점인 3월 26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공의를 모았다.

이어 중앙종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명의 건을 통해 법화사 주지 정운 스님의 임명안을 가결했다.

신중일 기자

"염불로 명상… 최고의 명상지도자 되길"

태고종, 명상지도자 1 · 2급 입학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불교 명상을 체계적으로 지도·교육할 수 있는 불교명상지도자 1·2급 양성에 나섰다.

태고종은 3월 21일 서울 종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불교명상지도자 1·2급 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입학식에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재홍 스님, 총무부장 도성 스님, 정준영 교수, 김재권 교수와 1·2급 과정 입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번 불교명상지도자 1·2급 과정에는 1급 16명, 2급 12명 총 32명이 입학했으며, 이들은 △유식심리학 △마음수행과 심리학 △명상과 심리학 등 이론 교육과 △사마타와 위빠사나 △선명상과 마음공부 △요가와 이완명사 △유식과 호흡명상 등 20주간 실습교육을 받게 된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오늘 입학생들은 마음이 아픈 중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명상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히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진우 스님 "자연과 사찰 공존" 강조

국립공원의날 5주년 기념식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의날 5주년을 맞아 자연과 전통문화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국립공원공단과 환경부는 3월 24일 서울 치악산국립공원 구룡사에서 '제5회 국립공원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사진〉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2023년 팔공산까지 23곳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국립공원 면적은 우리 국토의 6.8%에 달한다. 이에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0년, 3월 3일을 법정 기념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축사에서 "한국불교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을 가꾸고 수많은 문화유산을 유지 보존하고 계승해 왔다"며 "1967년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국립공원을 보존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고 자연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지키며 상생하는 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자연보호와 문화유산 보존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가치를 전달할 방법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주 구룡사=임은호 기자

마가 스님 "행동하는 일류로 거듭나길"

'나는 내 인생 주인공' 주제 강의



"일류는 행동하고, 이류는 말 만 하고, 삼류는 생각만 합니다. 행동하는 일류로써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세요."

사단법인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사진〉이 3월 24일 서울 성균관대 경영관 소극장에서 성균관대 불교학생회 '성불회' 주관으로 열린 8개 대학 연합법회에 참석해 토크콘서트 강사로 나섰다. 법회에는 성균관대, 서울대, 고려대, 동국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한국외국어대 불교동아리 회원과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장, 유주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 마가 스님은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실천으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을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도량탑 제막…마음 등불 밝히다

3월 22일 제주시 영평하동 현장서 제막식 거행

제주=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주도에서 마음근본 자리를 찾는 수행 이정표를 세워 온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이 3월 22일 불사 핵심인 도량탑(구정탑)을 준공, 제막식을 거행했다.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지원장 혜묘 스님)이 3월 22일 제주지원에서 개최한 도량탑 제막식은 사부대중이 불사 회향 기쁨을 나누고 실천행의 원력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날 제막식은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화합재로 문을 열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하여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 등 국내 15개 지원 지원장 스님, 승단 스님들이 참석했으며, 신현준 한마음선원 신도회장과 장언식 제주지원 신도회장 등 전국 각지 불자 1500여 명이 제주도까지 함께 했다. 또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 이화행 한마음과학원 원장 등 관계법인 및 산하기관 단체장을 비롯해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등 각계 내외빈이 자리를 빛냈다.

화합재와 예불에 이어 제막식에서는 1989년 10월 22일 대행 선사가 제주지원서 설한 법문이 영상으로 소개됐다. 영상을 통해 마음공부에 대한 중요성과 도량탑이 담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현장에 울려 퍼졌다.

전국 각지 1500여 사부대중 운집
대행선사 마음공부 가르침 형상화
탑에 제주불교와 불사 의미 새겨
혜수 스님 "새 정진의 계기" 당부

대행 선사는 "분별심을 여의려면 자기 자신을 믿고 맡기고 정진해야 한다"며 "제주도의 넓은 바다만큼 지혜가 넓다면 분별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법문해 잔잔한 울림을 선사했다.

도량탑, 한마음 가르침 오롯이 담겨

이날 제막된 도량탑에는 다름이 없는 평등, 모두가 하나되는 한마음이 담겼다. 탑을 지탱하는 기단석은 제주바다의 물결을, 하대석은 석재 표면을 거칠게 드러내 험난했던 제주불교의 역사를 상징한다. 위에 자리한 연화대는 제주불심을, 네 모퉁이를 지키는 수호신은 불교 사천왕과 제주도 돌하루방을 융합하여 새겨졌다. 가장 높은 곳의 아홉 개의 구는 뭇중생이 구정토(九淨土)에 이르기를 발원하는 대행 선사의 원력을 담고 있다.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역사에선 이번에 제막된 도량탑의 의미가 잘 드러난다.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은 국내외 지원 중 두 번째로 1987년 6월, 제주 동문시장 내 한 빌딩 사무실을 임대해 개원했다. 개원 초기 제주불교 만의 독특한 기복문화 속에서 생활수행과 마음공부의 가르침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대행 선사의 '아무리 어려워도 방편을 쓰지말고 진실로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제주지원 사부대중은 정진했다. 제주지원은 1989년 현재 위치한 제주시 영평하동으로 이전하여 터전을 닦기 시작했다. 이러던 중 1994년 대행 선사를 모시고 4·3추모 대법회를 제주시민을회관에서 열며 사찰로서는 매우 독특한 불사 이력을 지니게 된다. 대행 선사 뜻에 따라 영탑공원을 조성하고 이후 1997년 대웅전을 준공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불사가 이어졌고, 그 마음은 신행활동 활성화로 이어졌다.

역경 극복, 기쁨의 웃음과 눈물 함께해

제주지원 불사의 대미로 이뤄진 도량탑 제막식에선 자연스럽게 조성 의미를 담은 영상 상영이 이어졌다. 불사 과정의 노고를 함께 나누는 내용으로 영상은 도량탑이 하나가 된 대중의 힘으로 이룬 성취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영상 상영 후 이사장 혜수 스님은 "도량을 돌아봤을 때 그동안 제주지원 신도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먼저 일어났다"며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라는 큰스님의 염원이 우주 끝까지 닿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은 "구정탑에는 제주불교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담겨있다. 근본자리를 잡아주는 구정탑이 생겨 도량이 비로소 꽉 찬 된 듯하다"며 "과거가 녹고, 현재가 펼쳐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실천행이 제주지원 대중을 통해 펼쳐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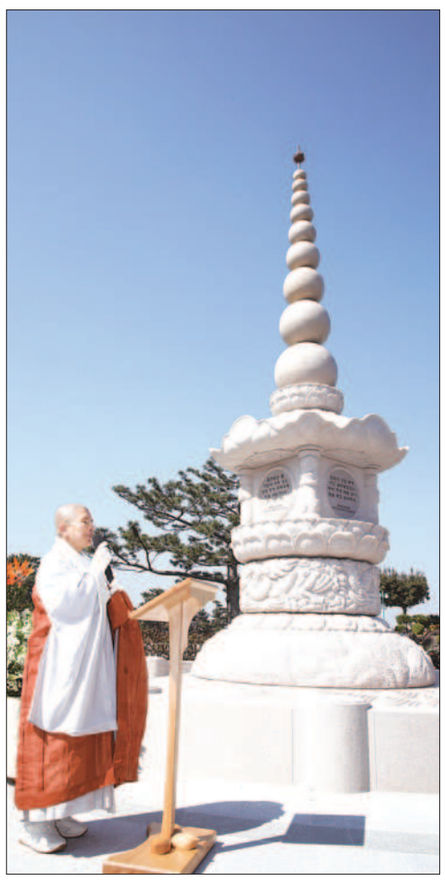
지원장 혜묘 스님은 "1997년 10월 16일 대웅전 낙성식 후 큰스님께서 불사 원력을 내려주신 지 28년만에 회향하게 되었다"며 "불사 심부름 중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도움을 주신 불보살님들이 계셨다"며 감사를 재차 전했다.

혜묘 스님은 이어 "'자기근본 불성에 믿고 맡기고 정진하라'는 큰스님 가르침에 의지, 어려움을 해결해나간 심부름이었다. 큰스님 뜻을 이어받아 부지런히 정진해 나가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대중들은 눈물을 훔치며 함께 기쁨을 나눴다. 김기상 건화건축사사무소 대표, 고흥기 신한종합건설 대표, 김한열 보광석재 대표 등 도량탑 조성을 맡은 이들에게도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 초기 신도회장으로 현재 영평동 이전에 기여한 故 문경행 신도회장에 대한 감사 꽃다발도 지원장 혜묘 스님이 부인에게 전달했다.


3월 22일 열린 도량탑 제막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등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함께 도량탑 제막하는 모습.


이사장 혜수 스님이 제막된 도량탑 앞에서 대중을 치하하고 있다.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등 대중스님들이 도량탑 제막에 앞서 뭇중생을 구정토에 이르게 하라 하신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다.


불사를 일군 지원장 혜묘 스님(사진 오른쪽)이 故 문경행 초대신도회장의 부인에게 꽃다발을 전하고 있다.


제주지원은 제주도에서 마음공부 수행 보급에 앞장섰다. 이번에 자리한 도량탑은 그 상징이다.



무주당 현기 대선사, 적멸의 세계로 떠나다

3월 24일, 영결식 후 통도사 다비
'지리산 은둔 수행자'로 불자 귀감
입적시 '좌탈입망' 생사 경계 초월
마지막 모습 무언의 설법으로 남아
3월 26일 초재 시작 5월 7일 막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결식 후 현기 대선사의 법구는 통도사로 이운돼 송수정 앞에서 노재를 봉행한 뒤, 연화대로 옮겨 다비를 진행했다. 사진은 통도사에서 진행된 노재와 다비.

마음 달이
야반 삼경에
무주고원에 떠오르고
달빛은 철문을 두드릴 때
동산을 머리에 이고
물 위로 지나간다.

간화선의 법등(法燈)을 밝혀온 무주(無住)당 현기(玄機) 대선사가 마지막 임종게를 남기고 적멸의 세계로 떠났다. 현기 대선사는 마지막 임종까지 좌탈입망으로 생사의 경계를 초월하며 생을 마감했다. 스님의 열반은 평생을 바쳐 이룬 수행의 완성으로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수행자와 불자들에게 무언의 설법으로 남았다.

전국선원수좌회는 3월 24일 선산 죽림사에서 영결식을 봉행하고 마지막 임종을 배웅했다. 영결식 후 스님의 법구는 통도사로 이운돼 송수정 앞에서 노재를 봉행한 뒤, 연화대로 옮겨 다비를 진행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추모사에서 "무주당 현기 대선사님 다비식을 통도사 총림 연화대에서 봉행하게 된 것은 통도사 대중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큰스님께서는 평생을 참선 정진에 바치셨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사의 법맥을 굳건히 이어오셨다. 큰스님께서 다시 오셔서 선풍(禪風)을 드날리고 중생을 제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의정 스님은 "현기 스님은 수행자들 사이에서 상징적인 존재였다. 평생 동안 선방에서 정진하며 수행의 길을 걸으셨고, 상무주암에서 40년간 두문불출하며 오로지 수행에만 매진하셨다. 스님의 존재는 모든 납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가르침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 있다"며 "스님의 일상에서 보여주신 언행은 항상 후학들에게 커다란 가르침이 되었고, 그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추도사를 전했다.

법상좌 원구 스님은 "오늘 함께해 주신 사부대중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히 통도사 주지 스님과 대중 스님이 베풀어 주신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저희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수행자로서 더욱 정진하며 그 뜻을 잊지 않고 수행정진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지리산의 은둔 수행자' 현기 대선사는 지난 3월 20일 오전 3시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세납 85세, 법납 64세로 입적했다.

무주당 현기 대선사는 1940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태어나, 1961년 10월 부산 묘관음사에서 당대의 선지식이자 성철 스님의 도반인 향곡(香谷) 스님을 은사로 불문에 들었다. 1965년 1월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하고, 평생 선 수행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 1962년 묘관음사에서 수선 안거를 시작한 이후, 현기 대선사는 전국 제방 선원에서 60안거를 엄정하게 성만했다. 이 기간 동안 대선사의 발걸음이 미치지 않은 선방이 없었으며, 깊고 고요한 수행의 흔적은 늘 법계의 귀감이 됐다.

무주당 현기 대선사의 49재는 3월 26일 초재를 시작으로 5월 7일 막재이다. 초재와 막재는 모두 대구 무광산사에서 열리며, 각 재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다. 2재는 대구 무광산사, 3재는 봉화 축서사, 4재는 양평 상원사, 5재는 충주 석종사, 6재는 다시 대구 무광산사에서 봉행 될 예정이다. 053-477-0108

화엄승가회 2대 회장에 대각 스님 취임

3월 21일, 창립 10주년 맞아
"모범 승가단체 되도록 최선"



부산불교교육대학 출신 승가모임 화엄승가회(회장 대각 스님)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3월 21일 롯데갤러리움 웨딩홀에서 기념법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화엄승가회 2대 회장으로 옥천암 주지 대각 스님이 취임했으며, 10년간 화엄승가회를 이끈 전임 회장 자인 스님에게는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감사패와 선물이 전달됐다.

취임사에서 신임회장 대각 스님은 "자인 큰스님께서 10년 전 부산불교 발전이라는 큰 뜻을 내시어 창립한 화엄승가회가 그간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원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봉사하는 승가단체로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화엄승가회의 정체성과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가슴에 새겨 발전하고 모범적인 승가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임사에서 자인 스님은 "화엄승가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 떠오른다"며 "지난 10년간 함께 정진해 준 회원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이제 새로운 회장단이 더욱 발전적인 승가회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으며, 앞으로도 함께 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생명나눔 부산·우리들병원 업무협약

치료비 지원 환우 추천 등 협력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와 부산우리들병원이 3월 25일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사진〉 협약식에는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 성문 스님(사상구 선광사 주지), 이승표 부본부장(주식회사 매직골드 대표), 조세민 부산우리들병원 본부장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치료비 지원 환우 추천 및 선정 △병원 내 캠페인 및 행사장소 제공 △각종 행사 시 상호협조 △부산본부 임직원 및 회원 대상 병원비 할인 등에 협력한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매월 2명의 환우에게 치료비(최소 2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들병원에서 추천하는 환우를 적극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홍법사, 미 해병군수단 장병 불교문화 체험 진행

3월 25~26일, 40여 장병 방문
싱잉볼 명상 · 발우공양 등 경험


홍법사를 찾은 40여 명의 장병은 참선하며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가 미 해병군수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국 불교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포항에서 훈련 중인 장병들을 위해 마련된 일정으로, 이들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영축총림 통도사, 서운암, 홍법사를 차례로 방문해 한국 불교문화와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심산 스님은 환영사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힘을 통해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마음 공부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목적은 같지만 방법이 다를 뿐이다"며 "물리적 평화와 정신적 평화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세계평화가 찾아온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마음의 평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법사를 찾은 40여 명의 장병은 참선하며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선차 체험을 통해 차 문화에 담긴 수행 정신을 경험했다.

이튿날인 26일에는 싱잉볼 명상과 천연염색 체험이 이어졌다. 또 발우공양을 하면서 한국불교의 식사 예절과 절제 문화를 배우고, 제기차기와 투호 던지기 등 한국 전통놀이를 하면서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일정을 마친 장병들은 주지 심산 스님에게 해병대 기념 동전을 선물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장병은 "소음과 혼돈으로 정의되는 세상에서 군인인 우리는 종종 자기 치유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다. 오늘의 경험은 평화로웠고, 해병대원들의 내면에 고요함을 제공했다"며 "이번 체험이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뿌리와 불교 수행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해줬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홍법사는 3년 전부터 미 해군 레이건호, 칼빈슨 항공모함 장병 등 미 해군 장병들에게 한국불교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왔다. 해병대 장병들이 홍법사를 찾아 한국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불교문화 전파와 교류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문인협회, 삼사순례 문학기행

3월 22일, 양산 및 울주 일원



부산불교문인협회(이사장 차정연)는 3월 22일 양산과 울주 일대에서 삼사순례를 겸한 문학기행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문학과 수행, 사찰문화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양산 통도사, 천성산 미타암, 울주 고경사를 순례하며 문학적 영감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사찰의 고요한 분위기와 기도 시간을 통해 사색과 시상을 떠올렸다.

차정연 이사장은 "문학도이기 전에 진실된 불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상진 스님 "매일 참회하며 십선계 실천하길"

인천 용궁사, '십선계 수계법회'
3월 23일 경내 특설무대서 봉행
사부대중 300여 명 법회 동참해
생전예수재 설행…금생 業 참회

인천 영종도=신중일 기자


인천 영종도 용궁사는 3월 23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생전예수재 및 재가불자 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산목숨을 해치지 마라. 생명을 존중하라. 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 선남자 선여인들의 계이니 너희들은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전계아사리스님의 계를 설명하며 지킬 것을 묻자, 수계대중은 모두 계를 지니고 지킬 것을 우렁차게 답했다.

인천 영종도 용궁사(주지 능해 스님)는 3월 23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생전예수재 및 재가불자 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 전계아사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갈마아시리에 용궁사 주지 능해 스님(행정부원장), 교수아사리에 교육원장 재홍 스님이 3사로 자리했으며, 7증사에는 구산 스님, 지허 스님, 동허 스님, 현성 스님, 육화 스님, 성각 스님, 법공 스님이 참여했다.

전계아사리 상진 스님은 경내에 운집한 300여 대중에게 십선계를 조목조목 설파했다. 이날 상진 스님은 대중들에게 △산목숨을 해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삿된 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으라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교만을 드러내어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지 말라 △탐심을 내고 욕설하지 말라 △진심(嗔心)을 내어 화내지 말라 △불법승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는 10가지 계율 내렸다. 수계자들은 십선계 하나하나 되새기며 지킬 것을 서원했다.

이어 7증사 스님들은 십선계를 지킬 것을 서원한 재가불자들에게 연비의식을 진행하며, 진정한 불자로 거듭날 것을 격려했다.

십선계 설파 직후 상진 스님은 소참법문을 진행했다. 상진 스님은 "옛 조사스님들은 계를 앉아서 받고 일어나서 파하더라도 계를 받으라고 했다"고 상기하며 "모르고 지은 죄는 업이 돼 크게 돌아온다. 계를 받아 지녀,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고 참회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설했다.

〈천수경〉의 '십악참회' 게송을 인용한 스님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이를 금일(今日) 참회해야 한다. 그래야 밝은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진다"면서 "오늘 귀한 자리에서 귀한 법을 수지했으니 수계 동참 대중에게 좋은 일이 더 많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수계법회 이후에는 본격적인 생전예수재 의식이 설행됐다. 용궁사 해조음합창단의 음성공양으로 시작을 알린 생전예수재는 △예수상단 △소청사자 △소청성위 △소청명부 △소청고사, 판관 △마구단 권공 △시식 △봉송 소대로 진행됐다.

용궁사 주지 능해 스님은 "오늘 전생의 죄악업연이 모두 소멸되고 사후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생전예수재와 열 가지 선한 행을 실천하기를 서원하는 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를 통해 매일 참회하며 스스로 돌아보는 바른 불자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선운사 참당암, 지장참회기도 400일 입재

10년 째 지장참회기도 이어와
법만 스님 "만족, 가장 큰 부자"



"기도는 업을 씻고 삶을 정화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지장참회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고창 선운사 참당암은 3월 23일 4차 지장참회 천일기도 400일 입재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참당암(선원장 법만 스님)은 3월 23일 참당암 대웅전 앞 야외법단에서 4차 지장참회 천일기도 400일 입재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봄기운이 완연한 날씨 속에 봉행된 이날 법회는 전국 각지에서 운집한 불자 7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BTN 불교TV '소나무' 진행자 광우스님의 특별법문도 진행됐다. 법만 스님은 "가장 멋진 회향은 삼독심을 떨쳐버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계정혜 삼학을 잘 닦아 지혜를 증득하는 삶"이라며 "욕심을 버리고 주변을 살피면서 만족이 가장 큰 부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화강 연등축제 '夜! 光明이다'로 열린다

3월 21일 봉축위원회 출범식



울산 태화강 연등축제가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다. 이에 앞서 봉행위원회 출범식이 3월 21일 울산 만디 3층 교육관에서 열렸다.〈사진〉

'야(夜)! 광명(光明)이다'를 주제로 한 연등축제는 4월 22일 봉축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25일 부처님 이운식, 봉축법요식이 열린다. 26일에는 명상음악회 '붓다 어게인', 청년 무대 '힙한 불교, 힙한 울산'이 마련되며, 27일 폐막식과 제등행렬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도사 안양암 '북극전' 보물 지정 청신호

국가유산청 지정 추진 대상 선정…학술 가치 높아



경상남도 지정 문화유산인 '양산 통도사 안양암 북극전(北極殿)'〈사진〉이 국가유산청 2025년 보물 지정 추진 대상에 3월 24일 선정됐다. 조선 후기 도교계 칠성 신앙이 불교에 포섭된 대표적 전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승격이 유력하다.

북극전은 1787년(정조 11) 중창된 이후 현재까지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전각으로, 통도사 산내 암자인 안양암의 중심 법당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석가모니불과 가섭·아난존자를 봉안하고 있다.

특히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북극'이라는 명칭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칠성 신앙의 상징성을 담고 있다. 북극전은 현존하는 칠성각 중 가장 큰 규모이자, 일반적인 '각(閣)'이 아닌 '전(殿)'의 명칭을 사용하는 희귀한 사례로, 조선 후기 칠성 신앙의 보편성과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국가유산청은 "북극전은 18세기 말 산내 암자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불전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익공계 공포, 팔작지붕 구조, 화려한 단청 등에서 당대 건축미를 엿볼 수 있고, 중건 시기와 관련한 문헌 기록도 학술 가치를 높인다"고 평가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보물 지정 추진은 북극전의 역사성과 예술성이 충분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 경남도 문화유산위원회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공식 지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북극전은 앞으로 경남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보물로 승격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국민매화 '화엄매'…사진으로 春香 담다

제5회 화엄사 홍매화·들매화 사진 콘테스트 개막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4월 22일 각황전 옆 홍매화 앞마당에서 '제5회 홍매화·들매화 프로 및 휴대폰 사진 콘테스트' 개회식을 개최했다.〈사진〉

'화엄! 홍매화의 향기를 머금고'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개회식은 화엄사 일주문에서 정광중 취타대의 연주로 시작돼,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각황매 앞으로 행진하며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주지 덕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붉게 핀 각황전의 홍매화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이라며 "이번 축제는 300년 전 계파선사가 심은 홍매화에서 시작된 깊은 인연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덕문 스님은 화엄매 자연유산 등재에 기여한 이원호 박사(국가유산청)와 성기홍 화엄사 홍보기획위원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장길선 구례군의회 의장과 이길용 구례 부군수는 "매화는 추위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며 "고결한 절개를 간직한 화엄매처럼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자"고 말했다.

개막식에서는 현중순 시인이 헌정한 '거룩한 법신 각황매여' 시가 동판으로 제작돼 각황매 앞에 제막됐다. 한편, 이상 기후로 화엄매의 개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화엄사는 사진 콘테스트 접수 기간을 4월 1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매화 '화엄매'는 300년 전 계파선사가 각황전 옆에 직접 심은 것으로 전해지며,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도 고운 자태와 향기를 간직해왔다. 혹한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의 기개와 함께, 국민 모두에게 봄의 희망과 위안을 전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며 '국민매화'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한불교총화종, 제1차 정기총회 성료

법인 설립 후 첫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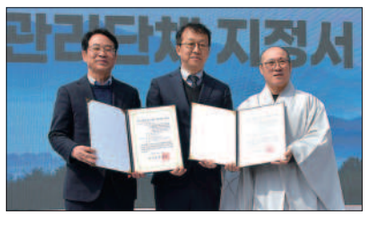
대한불교총화종(총무원장 혜각 스님)이 3월 26일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총본산 실상사에서 제1차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사진〉

총무원장 혜각 스님은 "부처님 법을 수호하고 불자들의 신행 활성화를 위해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종도 스님들이 화합과 자비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교 가르침 실천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 보존 및 생명의 소중함을 포교의 중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강진 백련사 일원, 국가 명승 지정행사

3월 19일 경내서 기념행사



강진 백련사(주지 설도 스님)는 3월 19일 경내에서 국가유산청과 강진군의 주관으로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 자연유산 명승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사진〉 명승 제2025-제1호로 지정된 구역은 총 32필지, 면적 448,193㎡에 달한다. 백련사 주지 설도 스님은 "자연과 문화, 유산을 잘 계승하겠다"고 다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안 쌍봉사 봄맞이 자비나눔 실천

60가구에 반찬 전달해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스님)와 쌍봉사 반찬나눔 봉사단(회장 김진옥)이 봄을 맞아 따뜻한 자비 나눔을 펼쳤다.〈사진〉 3월 22일 진행된 반찬나눔 봉사에서는 보경 스님과 김진옥 회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콩나물 무침, 메추리알 곤약 조림, 봄동 무 겉절이를 준비했다. 24일 열린 '자비의 쌀 나눔' 전달식에서는 쌀 1260kg을 지역사회에 전했다. 보경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이 작은 나눔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곡사 본말사 합동방생 대법회

3월 22일 금강변서



공주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는 3월 22일 금산군 월영산 인근 천내리 금강변에서 '제6교구 본말사 합동 방생 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25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잉어 2500여 마리를 방생하며 자비를 실천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오늘은 정말 뜻깊고 좋은 날이다. 본말사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들께서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깊은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울산 정관암 제9회 '차·시·락의 밤'

3월 22일 경내 특설무대서



울산 정관암(주지 대활 스님)은 3월 22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9회 '차·시·락의 밤'을 개최했다.〈사진〉 행사는 지역 예술인, 시민, 불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차를 마시고 시를 감상하며 음악을 즐기는 복합문화잔치로, 정관암의 대표적인 봄맞이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지 대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긴 겨울을 지나 만물이 눈을 뜨는 봄처럼, 시민 여러분 모두가 따뜻한 햇살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태고종 충북교구 제2회 용왕대재

3월 23일 중앙탑공원서



태고종 충북교구종무원은 3월 23일 충주 중앙탑공원에서 '도민행복과 안녕을 위한 제2회 합동 용왕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충북교구 원융불교대학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대재는 충북 도민의 안녕과 지역의 평화, 나아가 나라의 안정과 세계의 화합을 기원하기 위한 기도 법회로,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충북교구종무원장 도성 스님은 "기도를 통해 부처님 자비와 지혜가 삶 속에 깃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고성 운흥사, 제295회 영산대재

3월 26일 경내 특설무대서



고성 운흥사(주지 월암 스님)는 3월 26일 제295회 운흥사 영산대재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법회는 1부 영산대재에 이어 법요식이 진행됐다. 이후 산사음악회와 2부 영산대재로 회향했다.

주지 월암 스님은 봉행사에서 "사명대사께서 사랑하신 매화 50여 그루를 도량에 심고, 만개한 매화의 향기로 공양을 올렸다"며 "오늘 영산대재는 호국영령의 극락왕생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며 봉행되었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 동원사 자비의 쌀 1000kg 전달

아동복지시설 14곳에



광주 동구에 위치한 무등산 동원사(주지 지장 스님)가 3월 18일 광주자비신행회(상임이사 김삼옥)와 함께 '지장 스님의 행복나눔 쌀 선물' 전달식을 열고 광주 동구 내 아동복지시설 14곳에 1000kg(20kg, 50포)의 쌀을 기부했다.〈사진〉

주지 지장 스님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감사하다"며 "쌀 한 톨 한 톨에 담긴 정성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美 소장 12세기 네팔 불상, 고향 돌아간다

출처 연구 통한 도난 문화재 반환
"두 나라 문화 교류 협력 기대"
추가 반환 요구 목소리 높아져

김민재 객원기자

시카고미술관의 유물 출처 연구 중 해당 불상이 도난 유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반환을 결정했다. 3월 19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시카고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12세기 불상 반환 소식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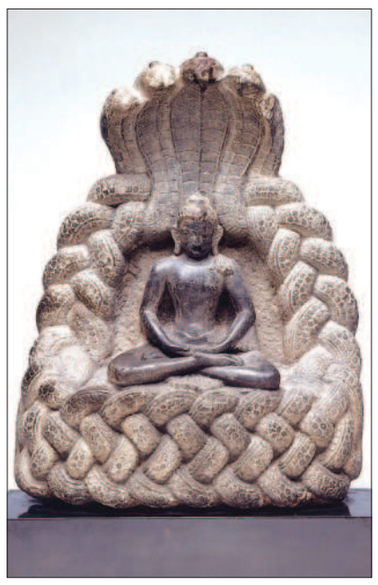
지난 3월 3일, 시카고미술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네팔 정부와 협력하여 '나가왕 무찰린다의 보호를 받는 붓다(Buddha Sheltered by the Serpent King Muchalinda)'를 네팔로 반환한다"고 발표했다. 이 불상은 나가왕 무찰린다가 깊은 명상에 잠긴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감싸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시카고미술관은 1997년부터 이 불상을 전시해 왔으며 여러 주요 전시에서도 선보였다. 불상의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팔 카트만두 계곡의 '구이타 바히(Guita Bahi)'에서 도난된 유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시카고미술관은 네팔 정부 및 워싱턴 DC 주재 네팔 대사관과 협력하여 반환 절차를 진행했다.

네팔 대사관의 샤라드 라즈 아란 대사는 "이 신성한 조각상은 수세기 동안 네팔의 문화와 공동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두 나라의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 보존, 연구, 교류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반환은 미술관이 소장한 작품들의 출처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과이다. 시카고미술관의 유물 출처 연구팀 자크 슈마허 책임 연구원는 "이번 반환은 유물 출처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카고미술관이 해당 국가 및 공동체와 협력하는 방식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시카고미술관은 2024년 초에도 12세기 태국 유물인 '크리슈나가 고바르다나 산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새겨진 필라스터 조각을 태국으로 반환한 바 있다. 이번 네팔 불상의 반환 역시 미술관이 진행 중인 지속적인 연구와 문화재 반환 노력의 일환이다.


시카고박물관이 반환한 '나가왕 무찰린다의 보호를 받는 붓다'. 사진출처=시카고 박물관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문화유산 보호 단체들은 시카고미술관이 여전히 소장하고 있는 다른 네팔 유물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예술 매체 '하이퍼알러제틱(Hyperallergic)'은 "시카고미술관의 소장품 중 카트만두 탈레주 사원에서 도난당한 금동 목걸이가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유물은 2021년 도난품으로 처음 확인되었으며, 이후 여러 활동가들이 반환을 촉구해 왔다.

이에 시카고미술관 대변인은 "각 부서에서 유물의 출처를 조사하는 작업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소장품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출처를 밝혀내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밝혀졌을 때 이번 반환처럼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반환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소장한 유물의 출처를 지속해서 검토하고, 도난 유물 반환이 중요한 책임임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네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난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카고미술관의 유물 반환이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中칭하이성서 14세기 마애불 발견

14세기 티베트 고원 불교미술 중요한 자료

중국 칭하이(青海)성 율쑬(玉樹)의 티베트족 자치주 역사문화연구원은 최근 자치주 남서부에서 14세기 원나라 때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불교 마애석각군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3월 21일 중국의 '신화통신'은 해당소식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보도했다.

잠양니마 율쑬 역사문화연구원장은 "마애석각이 발견된 절벽은 현지에서 오래전부터 미륵불의 절벽이라는 뜻의 '잠빨라 마나'라고 불려왔다. 미륵불을 주존으로 하는 마애불이 존재하는 것은 보고되어 왔으나 학술적인 조사가 이루어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발견된 마애불은 4080m의 절벽에 조각되어 있으며, 절벽 높이는 2.6m, 폭 1.46m. 새겨진 마애불은 세로 1.1m, 가로 0.74m로 지면에서 약 0.7m의 위치에 있으며, 깊은 부조 기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발견된 마애불은 미륵불을 주존으로 하는 불교 조상군이다. 보관을 쓴 미륵불이 설법인을 한 모습으로 중앙 법좌에 앉아 있으며 그 양쪽에 높이 30cm의 작은 불상들 4구가 조각되어 있다. 왼쪽 상단에 석가모니, 왼쪽 하단과 오른쪽 상단에 아미타불, 오른쪽 하단에 무량수불이 각각 새겨졌다. 또한 마애불의 왼쪽에는 높이 16cm의 미륵 마애불 2구가 더 확인됐다.


절벽에서 발견된 미륵 마애불. 사진출처=신화통신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발견이 14세기 원대 티베트고원 불교미술 연구에 중요한 실증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율쑬 티베트족 자치주에서는 이번을 포함해 마애석각 유적이 9곳 확인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 불교단체 "달라이라마에 최고시민 훈장을"

'바라트 라트나' 수여 촉구
"달라이라마 인도 환생 바라"



총회에 참석한 인도 불교 대표들. 사진출처=올거나이저 뉴스

인도 내 히말라야 산맥에 접한 여러 주의 불교단체가 모인 협회 '나란다 불교전통 인도 히말라야 위원회(IHCNBT, 이하 히말라야 위원회)'는 3월 21~22일 제1차 총회를 갖고 인도 최고 시민훈장 '바라트 라트나(Bharat Ratna)'를 달라이라마에게 수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22일 인도 현지 언론들은 히말라야 위원회의 총회 소식을 자세히 보도했다.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히말라야 위원회에는 인도 전역에서 120명의 불교계 대표들이 모여 진행됐다.

로첸 툴쿠 린포체는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히말라야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지역언어와 문화, 종교를 보존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히말라야 지역 간의 연대를 조직하고 기존의 교육기관인 사원의 학당과 강원들을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학습센터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는 달라이라마 조언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학습센터를 개방할 것이며, 이는 국립교육연구소로부터 공인받은 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히말라야 위원회는 이번 총회의 주요 결의안으로 달라이라마에게 인도 최고시민훈장인 바라트 라트나 훈장을 인도정부가 수여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달라이라마는 인도와 티베트 간의 역사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전례 없는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평화와 비폭력을 선양한 것은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달라이라마의 공로에 찬사를 보냈다.

또한 "달라이라마는 인간적 가치를 발전시키고, 종교 간 조화를 촉진하며 인도에서 유래된 고대 날란다 대학의 불교전통을 되살려 인도 불교의 중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 업적도 기념했다. 달라이라마는 최근 출간된 자신의 회고록에서 인도를 '성인들의 땅(Aryavarta)'이라고 부르며, 인도가 티베트의 영적, 문화적 전통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히말라야 위원회는 최근 화제인 달라이라마의 후계자에 관한 결의안 두 가지도 통과 시켰다. 첫째로, 위원회는 달라이라마의 환생을 인정하는 것이 고대 날란다 불교전통에 근거한 신성한 종교적 과정이며 어떤 정부나 정치기관도 이 과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오직 달라이라마의 공식사무국만이 달라이라마의 환생을 인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 달라이라마를 선택하는 데 있어 외부의 영향이나 정치적 간섭에 강력히 반대하며 외부 조직이나 정치세력이 후계자를 강요하려는 시도는 인도내 히말라야 불교 공동체에서 강력히 거부할 것을 분명히 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뉴욕 차이나타운 불교 사찰 5곳 연쇄 훼불

한밤중 공격, 관음상 손목 절단
용의자, '공양물' 훔쳐먹기도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사찰 여러 곳을 연달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3월 20일 뉴욕 언론 'ABC7', '뉴욕 포스트' 등은 뉴욕 연쇄 훼불 사건을 보도했다.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이미 다섯 곳의 사찰이 피해를 본 뒤였다.

첫 공격 대상이 된 곳은 19일 새벽 1시경 맨해튼 파이크 스트리트에 위치한 '숭덕사'였다. 용의자는 소화기를 집어 들고 관음상을 내리쳤다. 이어 소형 불상을 바닥에 던져 완전히 박살 냈다. 몇 시간 뒤 같은 사찰을 다시 찾은 용의자는 사람들이 정성껏 올려둔 공양물을 꺼내 먹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또 다른 피해 사찰인 헨리 스트리트의 '세계불교센터'에서는 용의자가 감시 카메라를 부수려고 시도했다. 브로드웨이의 '그레이스 그래티튜드 사원'도 피해를 입었다. 사찰 보호를 위해 방탄유리를 설치했지만 이번 공격에서 유리창 하나가 박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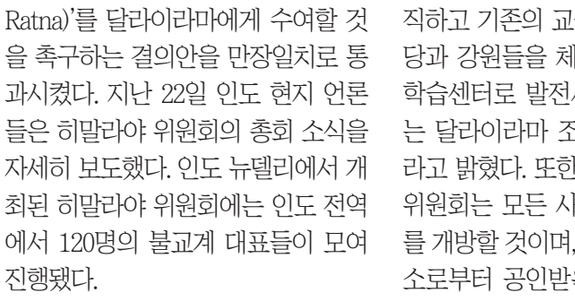

훼손된 숭덕사 관음상. 사진출처=ABC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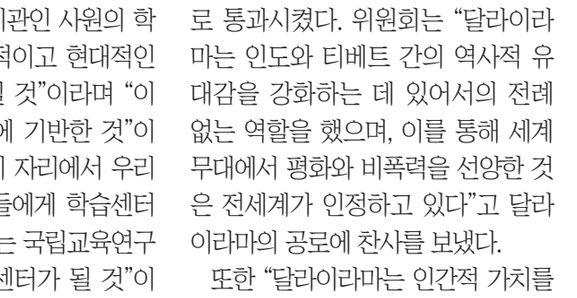
연쇄 훼불 사건 소식이 퍼지자 불교계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레이스 그래티튜드 사찰 주지 정이 스님은 "아름다운 사찰이 무참히 훼손되어 가슴 아프다"고 탄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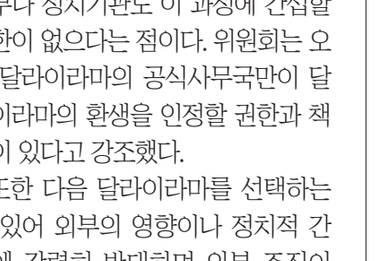
경찰은 수사 끝에 49세의 남성을 체포했다. 그는 도교 사찰 세 곳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증오범죄이다. 사찰뿐 아니라 지역 사회를 향한 공격"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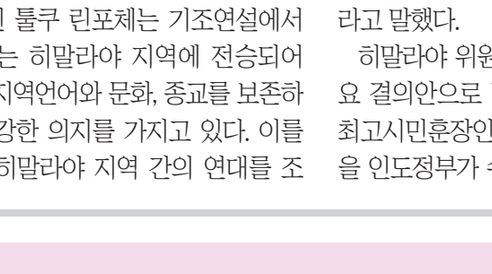
사건을 계기로 뉴욕 불교계는 사찰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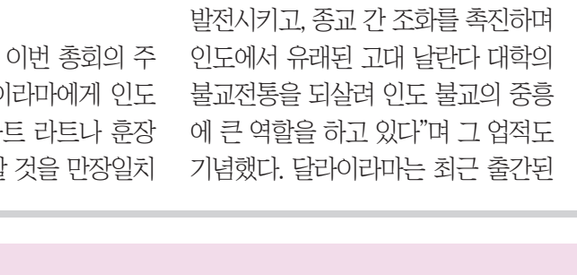
해광산업
해광양초는 특별한 양초로 양초에 정성과 향을 담습니다
"자연친화적향의 향기가 법당에 스며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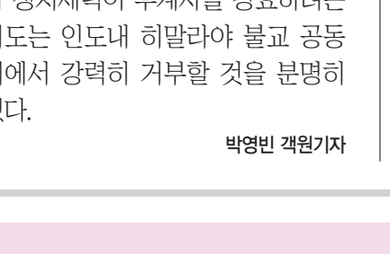
침향향을 담은 양초

육각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약쑥향을 담은 양초 (강화도 사자발 약쑥)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2호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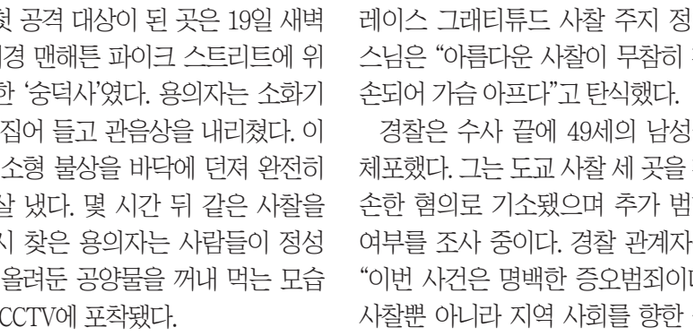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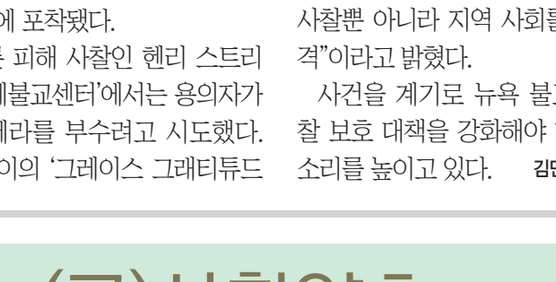
PC 팜 원통초

대 중 소

연꽃향을 담은 양초

육각 원기둥(중) 원기중(소) 1호

밀랍향을 담은 양초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2호 3호

밀납향을 담은 초

대 중 소

해광산업 주문전화번호 031-333-0242, 010-5848-0189

(구)삼환양초가
중국 대련에서 40년 기술 노하우를
현지 공장에 전수하여 관리 생산한
최고급 중국산 대련양초를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WWW.SHCANDLE.COM
NAVER 삼환양초

원기둥 돈타레 밀대 쌍대
*유통 마진 없이 소비자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삼환양초 주문전화번호
031-337-0243, 010-2308-0189

선사부터 조선까지…탁본에 담아낸 염원들

동국대 박물관 '보묵천향' 특별전
'반구대 암각화 탁본' 최초 공개
탁본으로만 만날 유산 면목 확인
'역사 기록물'로 탁본 가치 조명
돈관 스님 "탁본 예술성 느끼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박물관 특별전에 처음 공개되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탁본. 1971년 동국대 박물관 울산지역 불적조사단에 의해 최초로 발견됐으며, 당시 책임자인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가 건탁 방식으로 탁본을 남겼다. 사진 제공=동국대

탁본(拓本)은 비석이나 기물 등의 각명(刻銘)·문양 등을 먹에 의해서 원형 그대로 종이에 뜨는 방법이다. 중국에서 시작돼 한국에 전해졌고 금석학과 함께 성행했다.

탁본 기술과 금석학은 함께 발전했다. 문자의 점획이나 선 등의 미묘한 부분은 탁본으로 확인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중국은 명비(名碑)의 탁본을 떠서 첩(帖)으로 만들었으며, '법첩(法帖)'이라 하여 서예의 명품 내지 교본으로서 활용했다. 최근까지도 전국의 비석 등 금석문에 대한 탁본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이유도 '역사 기록물'로써 탁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높아서다.

동국대 박물관(관장 임영애)이 3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하는 특별전 '보묵천향(寶墨天香)-보배로운 먹, 하늘의 향기'는 탁본을 통해 문화유산들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여서 눈길을 끈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됐다. 먼저, 전시의 시작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소재한 '석수동 마애종'(경기도 유형문화유산)을 통해 '두드림으로 기록한 역사'를 전한다. 한국 유일 마애종인 '석수동 마애종'은 5m 정도의 정방형 암면을 고르게 다듬고 음각과 양각을 이용해 승려가 두 손으로 당목(撞木)을 잡고 종루에 매달린 범종을 타종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애종 조성 시기를 고려시대 11세기 전·중반으로 보고 있다.

'불심, 탁본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의 1부는 종·광배·탑·비석에 새겨진 조각과 문양 등의 탁본을 통해 불교미술의 색다른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탁본을 통해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문양들은 별도 관람포인트를 통해 짚어본다.

2부 주제는 '하늘과 땅의 질서를 새기다'로 고승의 업적을 찬탄한 기록,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해 왕조와 개국의 이상을 돌에 새긴 천문도 등의 탁본 기록을 만날 수 있다.

'두드림, 영원히 기억되다' 3부는 사실상 전시의 하이라이트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가 1971년 동국대 박물관 연구원으로 활동 당시 발견한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탁본이 최초 공개되어서다.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고래를 사냥하는 모습부터 인물, 동물 등이 빼곡히 기록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선사 암각화 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고래사냥 그림이다. 현재, 반구대 암각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오는 7~8월 경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문명대 명예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신석기 시대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울주 대곡리 암각화다. 멧돼지, 호랑이, 고래 등 육지와 바다 동물 200여 점이 새겨져 있고, 이를 사냥하는 모습도 담겼다"면서 "신석기 시대 문화 예술 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유적이 반구대 암각화"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실되거나 북한에 소재해 현재 만나볼 수 없는 문화유산들을 탁본으로 남긴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임영애 동국대 박물관장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동국대 박물관은 1967년 개관 이후 첫 특별전으로 '신라 범종 탁본전'을 개최했다. 이후 60년 만에 다시 특본 특별전을 마련하게 돼 더욱 뜻 깊다"며 "이번 특별전을 통해 종이와 먹으로 이뤄진 탁본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채로운 의미와 색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울주 대곡리 암각화' 탁본을 비롯해 동국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탁본 유산들을 대중에게 선보이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특별전은 탁본이 지닌 예술성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명대 명예교수 인터뷰 13면〉

한국 범종 소리, '다감각'으로 체험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감각전시실 '공간_사이' 조성

상설전시관 3층에 공간 마련
국보 '성덕대왕신종' 맥놀이
시각 · 청각 등 체험 가능해

국보 '성덕대왕신종' 등 한국의 범종 소리를 시각, 청각 등 다감각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재홍)은 상설전시관 감각전시실 '공간_사이'를 새롭게 조성하고 3월 21일 공개했다.

'공간_사이'는 상설전시관 조각공예관 3층 청자실과 금속공예실 사이에 위치한다. 금속공예실의 주요 전시품이기도 한 한국의 범종 소리를 주제로 공간을 구성하고 이를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공간_사이'는 2023년에 조성된 '공간 오감'(시각장애인도 함께 즐기는 공감각 전시 학습 공간)과 연결선상에서 기획됐다.

무엇보다 '공간_사이'가 기존의 전시 공간과 차별점을 갖는 것은 한국 범종 소리의 원리를 여러 감각을 통해 경험해 볼 수 있어서다. 특히 한국 범종을 대표하는 국보 '성덕대왕신종' 소리의 특징인 맥놀이(소리의 강약이 반복되며 길고 은은하게 이어지는 현상)를 시각·청각·촉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새로 조성된 '공간_사이'는 다양한 세대, 국적, 장애 유무, 박물관 경험 정도의 차이 등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관람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한다"면서 "두 개의 전시실 사이 공간이면서 여러 관람객들



국립중앙박물관에 새로 조성된 전시공간 '공간_사이'의 범종 타종 미디어 아트.

사이를 이어주는 의미를 공간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전시 공간 중앙에 폭 4m, 높이 4m의 대형 LED 화면 구조체를 배치해 영상 안에서 〈성덕대왕신종〉의 거대한 존재감을 구현했다. 영상에는 한국 범종 소리의 원리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한편 실제 〈성덕대왕신종〉의 종소리에 기반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성덕대왕신종' 맥놀이를 구성하는 저주파수대 소리를 효과적으로 재현할 수 있도록 스피커를 배치해 범종음의 청각 체험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LED 화면 구조체의 뒤편에는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청음 의자도 마련돼 있다.

'공간_사이'는 한국 범종 소리의 원리를 여러 감각을 통해 경험해 보는 공간이다.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한국어를 기본으로 한국수어, 음성해설, 큰 글씨, 영어 번역과 함께 제시되어 전시실을 찾는 관람객 누구나 불편함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음성해설은 오디오가이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전시 패널에 제시된 내용뿐 아니라 관람에 이해를 돕는 내용을 두루 담았다"면서 "시력에 어려움이 있는 관람객 특히 시각장애인이 공간이 담고 있는 정보와 분위기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가야문화 교류' 국제학술대회 열린다

가야문화진흥원 4월 6일 범어사 선문화관서

제10회 가야문화진흥 국제 학술대회가 4월 6일 오후 1시 부산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개최된다.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해공 스님)이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가야문화 진흥과 연구를 위한 국제적인 학술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쿠마르 학장(델리대)이 '파사석탑의 인도 예술적 요소(Indian artistic elements in the Pasa Pagoda complex)'를 주제로 발표하며, 김용준 교수(고려대)가 토론을 맡는다. 이어 △문광희 명예교수(동의대)가 '가야 弁(변)이 우리나라 쓰개문화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김영재 소장(한산연구소)이 토론자로 나선다. △히로세 연구위원(부산대 박물관)은 '일본에 있는 고대 가야문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오순제 소장(한국고대사연구소)이 토론을 맡는다. 마지막으로 △능현 스님(아리랑문화진흥원)이 '인도와 가야문에 대한 고찰(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정영도 연구위원(인제대 융복합문화센터)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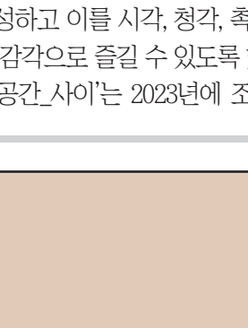
종합토론은 박재석 명예교수(인제대)의 사회로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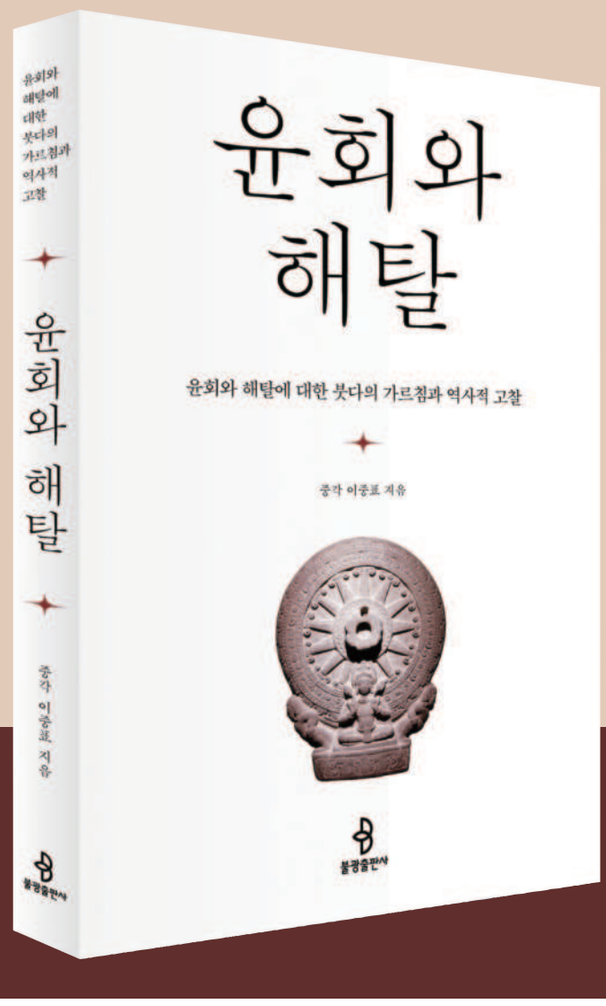
'윤회는 있는가, 없는가'
'윤회는 불교인가, 불교가 아닌가'

윤회에 대한 모든 의문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명쾌한 해설!

한국불교계의 대표 석학이자 수행자,
중각 이중표 교수가 붓다의 직설(直說)인 근본경전을 바탕으로 살핀
붓다가 가르친 '윤회'와 '해탈'의 길



"어떤 이들은 붓다는 당시의 인도인들이 믿는 윤회설을 방편으로 수용했다고 이야기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붓다 당시의 인도에는 다양한 윤회설이 있었다.
그렇다면 붓다는 어떤 윤회설을 수용했다는 것인가? (……)
붓다도 윤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윤회설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회라는 생각 자체가 연기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사견(邪見)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_본문 중에서



윤회와 해탈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과 역사적 고찰

윤회와 해탈

중각 이중표 지음
224쪽
17,000원

중각 이중표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석학으로서, 현재 불교 신행 단체 '붓다나라'를 설립하여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붓다의 가르침을 한 권으로 집약한 한글 경전인 『불경』을 비롯하여 '정선(精選) 니까야 시리즈(전 4권)', 『인간 붓다』, 『붓다의 철학』, 『불교란 무엇인가』,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등이 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6~4/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밀교의 성불원리:이번생에 바로 성불하는 티베트불교의 수행법	중암 선혜 역해	불광출판사	6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탄하삼성/최만희 편저	운주사
2	사십구재란 무엇인가(생활불교총서1)	효림 지음	동진삼보기획	7	부처님의 당부:초기경전에서 선별한 지혜의 말씀	비구 보디/등현 감수	사유수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불멸(1) 영원한 지금의 메시지*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눈
4	불멸(3)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이각	지혜의눈	9	가사체승만경과 정본한문승만경	지운, 이인자, 조현춘, 천희완, 김순남 공역	운주사
5	부처님의 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10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특별판	법정/김계윤 그림	불교신문사

책세상

1950년~2020년 베스트셀러 불교책 '한자리에'



도)민족사, 4월 3~6일 국제불교박람회서
이광수 〈원효대사〉 법륜 〈인생수업〉 등
베스트셀러 올랐던 17종 역대 불서 전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서 출판' 한길을 걸어온 도서출판 민족사는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불교박람회에서 1950년대부터 2020년까지 베스트셀러가 된 불교책 17종을 전시한다.

한국 출판계에서 불교 서적의 의미는 종교 서적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선 것으로, 인문, 철학, 문학을 아우르는 교양서로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1950년부터 베스트셀러에 오른 불교 서적은 불교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전해왔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전하며, 종교를 초월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한때는 불교 서적 중에서 밀리언셀러가 나오기도 했지만 출판 시장의 축소로 인해 이제는 그 예를 다시 보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불교 서적은 여전히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며 독자들에게 삶의 지혜와 성찰 등 유익함을 전하는 '책'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불교 서적이 시대와 함께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조명하고, 그 가르침이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불교 책이 단순한 신앙서가 아니라 철학이자 문학으로서 자리매김해온 과정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교 서적이 전하는 지혜와 감동이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1950~1970년대
전쟁의 상흔과 불교적 성찰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는 여러 가지로 복구할 것들이 많았다. 대중은 물질적 궁핍과 더불어 정신적으로도 많이 어려웠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인간 본연의 괴로움과 해답을 담고 있는 불서들은 시대적으로 대중과 잘 어울렸다. 대표적인 사례가 춘원 이광수의 〈원효대사〉(1948)와 김일엽의 〈청춘을 불사르고〉(1962)이다.

〈원효대사〉는 격동의 시대 속에서 불교철학과 원효의 삶을 재조명하며 대중적인 관심을 끌었다. 책은 1942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일신보에 226회 연재된 후, 1948년 생활사에서 2권으로 발행됐다. 1956년 12월 광영사에서 합본 출간한 뒤, 불교소설 최초로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 책을 통해 원효대사는 1300여 년 만에 파계승이라는 낙인을 벗고 위대한 고승, 민족 사상가로 재조명됐다.

1960년대에는 김일엽의 〈청춘을 불사르고〉가 출간됐다. 불교적 삶을 선택한 후 34년 만인 1962년, 오랜 침묵을 깨고 발표한 자전적 수필집으로 어린 시절, 이성 관계, 결혼과 실패, 그리고 33세에 출가하여 불문에 입문하기까지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약 12편의 글이 실린 이 책은 출간 후 5개월 만에 5판이 인쇄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1950년대~2020년, 베스트셀러 불교책 17종

1. **〈원효대사〉** 춘원 이광수, 1956년 12월 광영사
2. **〈청춘을 불사르고〉** 김일엽, 1962년 7월, 문선각
3. **〈무소유〉** 법정, 1976년 4월, 범우사
4. **〈만다라〉** 김성동, 1979년 11월, 한국문학사
5.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 1980년 4월, 정다운
6. **〈우담바라〉** 남지심, 1988년 11월, 고려원
7. **〈화엄경〉** 고은, 1991년, 민음사
8. **〈길 없는 길〉** 최인호, 1993년, 샘터
9.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각, 1999년, 열림원
10.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동쪽나라, 문학의 숲
11. **〈오두막 편지〉** 법정, 1999년 12월, 이레
12. **〈일기일회〉** 법정, 2009년 5월. 문학의 숲
13.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달라이 라마 2001년, 김영사
1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2012년, 샘앤파커스
15. **〈화〉** 틱낫한, 2013년 4월, 명진출판사
16. **〈스님의 주례사〉** 법륜, 2010년 5월, 휴
17. **〈인생수업〉** 법륜, 2013년 10월, 휴

△1970~1990년대
사회 변혁과 함께 성장한 불교 서적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사회는 경제성장, 민주화운동 등 격변의 사대였다. 1980년대는 불교 출판의 도약기로, 불교를 소재로 한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내면의 갈등과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수행, 명상, 무소유 정신을 강조한 불교 서적들이 주목받았으며, 불교 철학을 문학적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법정 스님의 〈무소유〉(1976)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정신적 가치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책 〈무소유〉와 스님은 종교를 초월해 많은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책은 1976년 초판 출간 이후 2010년 3월까지 86쇄를 기록했으며, 330만 부 이상 판매됐다.

〈무소유〉 외에도 〈산에는 꽃이 피네〉(1998), 〈오두막 편지〉(1999) 등 법정 스님의 책들은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고 있다.

김성동의 〈만다라〉(1979)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질문을 던진 불교적 색채가 짙은 소설로 큰 사랑을 받았다. 〈만다라〉는 '불교소설'로서는 드물게 100만부 판매를 기록하며 밀리언셀러 반열에 오르는 등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1981년에 영화로도 제작됐다.

남지심의 〈우담바라〉(1988)는 불교 수행과 깨달음의 과정을 서사적으로 녹여내며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출판 후 1주일 만에 1만 5000부가 판매됐고, 총 600만부 이상 팔리며 불교 문학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또 다른 작품으로 고은의 〈화엄경〉(1991)이 있다. 한국 현대 문학의 거장이자 시인인 고은은 불교의 대표 경전인 〈화엄경〉의 맨 마지막 장(章)인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침을 구하는 구도 과정을 장편 서사시 형식으로 소설화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종교 서적을 넘어 문학적 성취로도 인정받았으며, 불교적 세계관을 철학적·시적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남아 있다. 〈화엄경〉의 사사무애(事事無碍, 사물과 사물 간에도 걸림이 없다) 사상이 그대로 적용되어 대상 인물이나 지역, 영역,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벽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정다운, 1980), 〈길 없는 길〉(최인호, 1993),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현각, 1999), 〈산에는 꽃이 피네〉(법정, 1998), 〈오두막 편지〉(법정, 1999) 등이 당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2000년대 이후 – 치유와 명상의 시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불교 서적의 흐름은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적 가르침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론으로 조명받기 시작했다. 명상과 치유, 행복에 대한 통찰을 담은 책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었으며, 불교가 더 이상 특정 종교인의 전유물이 아닌 현대인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2012)은 출간 후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출간 당시, 사회적으로 심리적 치유와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더욱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후 여러 명상 및 마음 치유 서적들이 대중적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스님의 주례사〉(2010)는 평화 운동가이자 불교계 대표 법사 법륜 스님의 대표작이다. 일반 대중을 주축으로 한 '즉문즉설'을 통해 사랑과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누적 판매량 48만 부를 돌파했다.

이 밖에도 〈일기일회〉(법정, 2009),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달라이 라마, 2001), 〈인생수업〉 (법륜, 2013), 〈화〉(틱낫한, 2013) 등이 있다.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

통도사 학장 인해 스님과 동학사 학장 명오 스님의 출가 이야기



승려의 삶을 사는 내내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입은
옷이 불편하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부디 자신의 인연에 꼭 맞는 옷을 찾아
입으며 참된 나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행히 여기에 내 옷이 있었다.

인해

스물 네 살의 청춘,
그 좋은 나이에 출가했다.
출가를 방해하는 여러 핑계를
나의 발심發心이 이겼다. 출가 생활은
감동의 도가니였다. 절은 상상 이상의
매력이 철철 넘치는 곳이었고, 스님들은
멋스러웠다. 자유와 행복, 출가의 백미이다.

명오

글 인해, 명오|17,500원|296쪽

인해 통도사 승가대학 학장. 해인사 강원과 조계종립승가대학원을 졸업,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과정을 수료했다. 이어 동국대학교 선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초대 이사장, 동국대학교, 해인사, 수덕사, 동화사 승가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는 통도사 김해포교당 바라밀선원 주지를 맡고 있다. 저서는 《달마대사의 소실육문》,《우리말 법화경》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남종의 선사상 연구〉,〈혜능의 좌선관〉외 다수가 있다. 제31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하였다.

명오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동학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선학과·영문학과(학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종교학과 석사, 은해사 조계종립승가대학원 수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역서《대승기신론열망소》로 제1회 반야학술상 저역상, 저서《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로 제19회 불교출판문화상에서 올해의 불서 10 선정 및 붓다북 학술상을 수상했다. 논문은〈초기불교 병인론과 대승불교 사경 공덕 및 심신치유에 관한 연구〉,〈초기불교와 대승불교《열반경》에 나타난 재가불자의 계율 사상 연구〉등 다수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현대인에 맞게 재정리한 부처님 원음 '니까야'



부처님의 당부

비구 보디 지음
민우 스님 옮김 · 등현 스님 감수
사유수 / 4만3천원

10개 주제에 맞게 〈니까야〉 선별 재구성
각 장마다 '들어가기'로 동기·효과 높여
유기적 구조에 다양한 경전들 포함시켜
교법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림
"불교공부의 체계 더하는 데 도움 될 것"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초기 경전'으로 불리는 빠알리 경전은 부처님의 '육성 원음'에 가장 가까운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주제가 다양해 초기불교 전공자들조차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이 경전들은 '니까야'라는 이름으로 따로 묶여 전해지는데, 주제별로 구성된 〈상윳따 니까야〉를 제외한 〈니까야〉들은 일정한 기준 없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는 어려운 경전이다.

책 〈부처님의 당부〉는 〈니까야〉를 현대인의 시각에서 재정리한 것으로, 현대인에게 필요한 10개의 주제에 알맞은 내용을 〈니까야〉에서 찾아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책이다.

책의 특징 중 하나는 각 장마다 저자가 정리한 '들어가기'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들어가기'에서 해당 주제를 소개하고 각 경전의 해당 문구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어, 독서의 동기와 효과를 높인다. 경전을 처음 접하는 대중에게는 공부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고, 이미 공부가 있어온 대중에게는 공부의 체계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자 민우 스님은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부처님 당시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고민, 갈등,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대중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번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처님의 당부〉는 하나의 유기적 구조에 다양한 경전들을 포함시켜 교법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구조 속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한 근본 뜻을 드러내어 독자들이 초기불교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책에 실린 대부분의 경전들은 빠알리 3장의 4부 〈니까야〉를 출처로 하고, 〈쿳다까 니까야〉에 속하는 〈우다나〉와 〈이티웃따까〉의 경전들도 일부 포함됐다. 각 장에서는 초기불교의 기본 개념들을 먼저 소개하고, 이어 경전 속에서 이 개념들이 어떻게 설해지는지 살핀다.

△1장에서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시기 전부터 인간이 겪는 숙명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있다. 독자는 늙음과 죽음에 속절없이 내몰리는 인간 세상을 목격하게 된다.

△2장에서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전한다. 대중은 부처님이 잉태되고, 탄생하고, 출가하고, 구도의 길을 떠나고, 법을 깨닫고, 법을 전하는 이야기를 따라간다.

△3장은 불교만의 독특한 특징을 드러내면서 불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경전들로 채워져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밀스럽거나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널리 가르칠 때 더욱 빛난다"고 적고 있다.



석굴암 본존불.

△4장에서는 불법이 가져다주는 세 가지 이익 중 첫 번째 이익을 다룬다. 이번 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익과 행복으로, 각자의 가정, 직장, 사회에서 윤리적 규범을 실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행복이다. 초기불교는 출세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출가하여 엄격한 수행을 하는 종교로 자주 언급된다. 하지만 〈니까야〉에 등장하는 부처님은 자비롭고 실용적인 스승으로, 사람들이 윤리적인 규범에 따라 조화롭고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질서를 세우고자 한다. 초기불교의 이러한 측면은 특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 부부간의 도리, 바른 생계, 국민에 대한 통치자의 의무 등에 대한 가르침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제5장의 주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수행하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익이다. 현생에 쌓은 복덕으로 내생에 유복하게 태어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익과 행복이다. 여기서 복덕이라는 말은 선한 업을 말하는데 윤회계에서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힘이 있다는 뜻이다.

△6장은 다음 장들로 전환하는 역할이다.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 세속에서 행복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증명하는 동시에 대중이 이 경계를 초월하도록 이끌기 위해 모든 조건지어진 존재의 위험과 불완전성을 밝히고 있다. 감각적 쾌락의 위험, 물질적 성공이 결점, 죽음의 필연성, 조건지어진 중생계의 무상함을 설명한다.

△7장은 해탈의 길을 개괄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여덟 가지 바른 길의 각 요소들을 분석하여 정의한 다음 비구의 수행 단계를 역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8장의 주제는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으로, 가장 주된 방법은 출가수행이다. 이 장은 마음 수련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극복하는 방법, 여러 가지 명상 기법, 장애를 제거하고 마음을 조복 받았을 때 얻는 경지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장은 통찰지를 주제로 하고 있다. 초기불교와 거의 모든 불교 학파에서 통찰지 또는 지혜는 해탈을 얻는 주된 수단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바른 견해, 다섯 가지 무더기, 여섯 가지 감각 기관, 열여덟 가지 요소, 연기, 네 가지 고귀한 진리와 같이 지혜를 계발하는 데 중심이 되는 교리를 위주로 하고 있다.

△10장은 그 과정의 주요 단계들을 설명하는 경전들을 모았다. 먼저 점진적인 순서대로 소개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큰 이정표가 될 만한 세 가지 단계를 살펴보는데, 바로 예류, 불환, 아라한 단계이다. 그리고 아라한 중의 아라한이신 부처님에 관한 경전들로 끝을 맺는다.

AI세상서 아이들이 사는 법



공심이의 비밀일기

김임천 글 · 그림
운주사 / 1만6천원

"본래 인류의 문명이란 것이 편안하게 살기 위한 노력의 결과잖아요. 그건 엄마도 인정하시죠? 드디어 게으르게 살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답니다. 정말 꿈같은 현실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학생이 공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저 위대한 챗-사부가 다 해결해준답니다. 저희들은 그저 '놀 먹'이라고요. 아! 신난다. 이런 세상이 경전에서 말하는 극락이겠지요?"

AI(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인류의 문화와 생활 전반이 시시각각 새로운 국면이다. 위의 대사는 동화 〈공심이의 비밀일기〉의 주인공인 공심이가 엄마와 나누고 있는 대화의 일부다. 동화 속에서 세상은 새롭게 등장한 AI로 인해 혼란스럽다. 가정에서부터 그 변화의 여파가 여실히 드러난다. 어린 딸은 달라진 세상에 빠른 속도로 적응하고 있지만 엄마는 그런 딸과 달라진 세상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책 〈공심이의 비밀일기〉(대원불교문화총서 8)는 AI시대에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다소 무거운 주제를 재미있는 동화로 풀어낸 책으로, 어린이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책이다.

AI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됐다. 작은 일상에서부터 최첨단산업까지 AI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없다. 더구나 디지털 감수성이 뛰어난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빠르게 AI시대에 몰입하고 있다. 근래에는 AI교과서 채택 문제가 교육적, 사회적 관심사가 됐다. 점점 더 AI에 기대는 공심이를 보는 엄마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공심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물론 그 여행에서도 챗GPT의 도움을 받는다. 공심이는 철쭉꽃이 되어 바람과 구름에게 시달리고, 찢어져서 버려진 로또를 만나 같은 처지의 아픔을 나누며, 낮고 지저분한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렁이로부터 보살의 삶을 배운다. 특히, "생각과 행동에 따라 신분이 결정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선택과 실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책은 다섯 편의 동화, 주인공 공심이의 명상 여행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나'와 '우리'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기대한다.

박재완 기자

조계종 교육원·포교원 30년 성과 자료집 발간



설립 배경부터 변화 과정 담겨
역대 원장 주요 활동과 전망도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조계종 교육원과 포교원이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30년 간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한 성과자료집 '30년사'를 각각 발간했다.

교육원 30년사에서는 교육원의 설립 배경부터 승가 제도 개선,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기 등 승가교육의 질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역대 교육원장 인터뷰를 통해 당시 승가교육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각 교육원장의 활동사진도 포함해, 업적과 기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육체계별로 △기초교육 △기본교육 △전문·특수교육 △재(연수)교육의 태동과 정착, 발전 과정을 통계로 살펴본다.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 △교육, 교재편찬, 역경위원회 △승가고시제도 및 고시위원회 △교육아사리제도 및 교육아사리심사위원회 △장학승제도 및 장학위원회 △교육기관 교수사 현황 △학술진흥 △교육원 발간자료 등 교육제도 및 인물별로 역할과 성과도 정리했다.

포교원 30년사에도 그간의 포교 현황과 주요사업 등이 공개됐다. 제1대 포교원부터 제9대 포교원까지 30년의 기록을 담고 있는 이 자료집은 포교원을 이끌어온 정락·성타·정련·도영·혜총·지원·지홍·범해·선업 스님의 포교 업적과 교역직 종무원 및 일반직 종무원의 포교활동 결과를 담고 있다.

1장 '포교원이 지나온 길'에서는 역대 포교원장의 활동 경과를 통해 포교원의 역사적 발자취를 돌아본다. 2장 '포교원 주요 사업'에서는 △연령별 △분야별 △신도교육 및 조직 △포교종책 연구별로 포교원이 진행한 주요 사업들을 소개한다. 3장 '포교 전략과 향후 과제'는 포교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부록에서는 '주요 연표' '역대 소임자' '포교대상 연혁' '포교사배출 현황' '단체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포교원은 "'포교원 30년사' 발간을 계기로 1994년 별원화된 포교원 30년 성과가 온전히 계승돼, 종단 포교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이것이 천태불교의 핵심이다!
천태불교의 이론과 실천
인도불교를 중국불교로 최초로 정착시키고 토착화시킨 천태불교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 전반을 서구 철학자의 안목으로 알기 쉽게 조명한 역작이다!
브룩 지포린 지음/정천구 옮김/520쪽/값 30,000원

불교철학 초심자들을 위한 안내서!
불교철학 길라잡이
2,500여년에 걸친 불교사상의 변천과 전래과정을 추적하여 불교철학의 주요 얼개를 오늘의 언어로 보여주는, 불교의 지적 전통에 관심 있는 독자들을 위해 개론서이다.
이규완 지음/276쪽/값 20,000원

인공지능시대,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
공심이의 비밀일기
자꾸만 AI에 기대는 아이의 모습에 어른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주인공 공심이와 함께 명상여행을 떠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김임천 글 · 그림/216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⑬ 감정을 觀하라



▶한줄 요약
'무시로 명상'은 매 순간 떠오르는 감정을 관찰하며 그것이 생기고 사라지는 과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힘을 길러줍니다.

일희일비 말고, 항상 감정을 관하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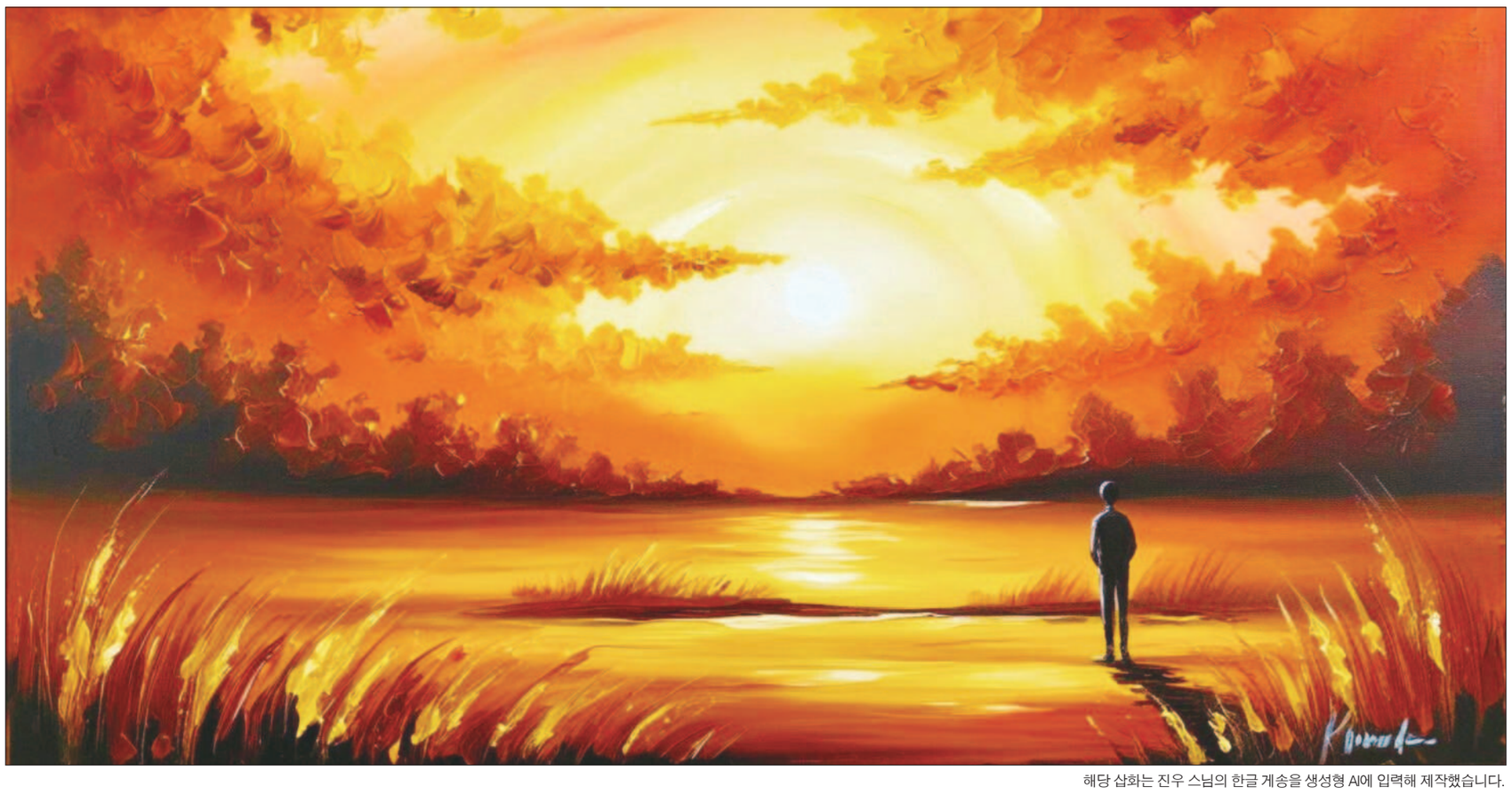
좋고 나쁜 감정은 항상 윤회해

만족만을 바라며 좋음만을 갈구

空함을 알고 인과 굳게 믿어야

'무시로 명상'으로 감정 살피길

"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이 순간 힘들어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만족하지 못한다면
행복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 좋은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늘 강조하듯이, 좋은 감정은 나쁜 감정에 비하여 생기고, 나쁜 감정은 좋은 감정에 비하여 나타나므로,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좋은 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뛰면 뛸수록 쳇바퀴만 급히 돌아갈 뿐, 한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고 심신(心身)은 더욱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더 높고 좋은 것을 잡으려는 마음은 더욱 강렬해지면서 기운은 소진(燒盡)되고,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만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늘 남아있습니다.

만족하려면 적어도 더 이상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하는데, 웬만한 마음의 수행(修行)이 되지 않고서는 바라는 마음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바라지 않는 만족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첫째, 모든 것은 결국 공성(空性)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누구도 생로병사(生老病死)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모든 것은 공적(空寂)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인과(因果)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내게 나타나는 일체의 감정이나 현상들은 내가 만든 원인으로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굳게 믿어 탐진치(욕심, 성냄, 망상, 貪嗔痴) 삼독심(세가지 독, 三毒心)을 잠재워야 하고, 셋째, 무명(無明)이 연기(緣起)하여 생로병사의 윤회 고(苦)를 일으키므로, 무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시 때때 일어나는 감정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휘둘리지 말고, 늘 감정을 관(觀)하고 살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중도(中道)의 마음을 유지해야 하느니, 화두(話頭) 즉, 공(空)과 인과(因果)의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무시로 명상'을 실천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무시로 명상'은 매 순간 떠오르는 감정을 관찰하며 그것이 생기고 사라지는 과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힘을 길러줍니다.

내게 나타나는 일체의 현상 즉, 보이고 들리는 것 모두 내 마음의 그림자라는 것을 굳게 믿고 절대 감정을 내어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림자와 시비하는 사람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오늘도 기도로서 화두를 챙깁니다.

[오늘의 명상]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는 한
생멸(生滅) 고락(苦樂)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거늘
보시(베품)는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괴로움을 비워내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욕심은 본능(本能)의 일종으로서, 기분을 좋게 하려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먹어야 하는 식욕(食慾)이 생깁니다. 식욕은 더 맛있는 것을 될수록 많이 저장해 놓으려 하는 본능을 다시 작동시키니, 이와 같은 욕심은 또 마음 깊숙이 저장이 됩니다.

때문에 모든 중생은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려는 본능에 충실하기 위해 살아가는 가치를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욕심을 채워 기분을 좋게 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불러오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는 고로, 만족한 기분은 금세 사라지며, 늘 배고픔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욕심에 의해 100만원어치를 구하여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100만원으로는 턱도 없어 기분이 금세 나빠집니다. 다시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이번에는 더 큰 욕심을 부려 1000만원을 구합니다. 잠시 또 기분이 좋았다가 다시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더 큰 것을 구하려는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1억을 구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이와 같이 좋은 기분은 나쁜 기분을 부르게 되고, 나쁜 기분을 없애기 위해 다시 또 좋은 기분을 채우려는 반복된 마음이 끝없이 계속됩니다.

원인은 나라는 아상(我相) 때문에 내 것이라는 본능이 발동하게 되고, 끝없는 욕심의 수레바퀴는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늘 배고픔에 의한 괴로움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우선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무소유(無所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본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유한다는 욕심은 괴로움의 과보(果報)를 불러와서 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이건 물건이건, 건강이건, 그 무엇이 되었건, 생로병사의 인연에 따라 들고 또 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욕심을 버린다고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욕심을 어떻게 제어(制御)하느냐는 의지(意志)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보시(布施)하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내 것이라는 망령된 생각에서 벗어나 끝없이 반복되는 기분의 기복을 극복하여 안정된 마음을 갖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보시한다는 마음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내 것이 나간다는 생각을 과감히 비워야 합니다. 들고 나는 것은 인연의 소치에 맡기고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행에는 '놓음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놓음 명상은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집착과 욕심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러한 연습은 보시의 실천과 직결되며, 마음의 번뇌를 줄이고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아상(我相)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적극적인 행위가 보시가 될지니,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이야말로 나를 구제해 주는 원력(願力) 보살이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보시바라밀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학자를 만나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

“넓게 보고 깊게 공부하라”…원로학자가 전한 조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문명대 명예교수는…1941년 출생으로, 경북대 사범대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굴암 불상조각 연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중 울산 천전리, 대곡리 선사 암각화를 발견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는 러시아 연해주 발해사원지 발굴, 파키스탄 탁실라 간다라 유적 발굴 등을 진행하는 등 많은 발굴 성과를 냈다. 정년퇴임한 2006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을 맡으며, 왕성한 연구 ·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조각사〉〈한국의 불화〉〈한국불교미술사〉 등 50여 편의 저서와 300여 편의 논문을 집필했다. 불교미술사학 연구발전 공로로 지난해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3월 25일 열린 동국대 박물관 특별전 ‘보묵천향(寶墨天香)’ 개막식.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반구대 암각화 탁본 앞에서 한 원로학자가 개막식 내외빈들에게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반구대 암각화 탁본을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그는 반구대 암각화를 발견한 장본인이자 전시되어 있는 탁본을 찍은 주인공이다. 문 명예교수는 1971년 12월 암각화를 발견할 당시 현장 사진을 찍고 건탁(乾拓)을 진행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탁본은 1972년 3월 동국대 박물관 조사단이 뜬 것이다.

개막식에 앞서 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만난 문 명예교수는 반구대 암각화 발견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머리를 풀었다.

“원래는 원효 스님의 주석처를 찾고 있었는데 말이지….”

문 명예교수에 따르면 그는 원효 스님이 주석하며 〈초장관문(初章觀文)〉, 〈안신사심론(安身事心論)〉 등을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반고사(磻高寺)를 찾고자 했다. 당시 문 명예교수는 동국대 박물관 울산불적조사단의 책임자로 조사단을 이끌고 있었다. 울산 지역을 조사한 것도 신라시대 외항(外港)으로서 구법승들이 오가는 곳이어서 새로운 사원지를 발굴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1970년은 3년차 조사로 조사 프로젝트의 마지막이 되는 해였고, 반고사의 흔적을 찾는 것이 그해의 최대 목표였다.

일단 반구대를 찾아간 문 명예교수는 이곳이 절터임을 직감하고 경주 출신 골동품 상인에게 자문을 구하자 반구대 위 한모령에 절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동네 주민을 찾아가자 주민들은 ‘최경환’이라는 노인을 소개했다. 해당 위치의 지형을 제일 잘 알았기 때문이다.

문 명예교수를 만난 최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산길 따라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바위에 뭐가 새겨져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옆에 절이 있었다고 하고….”

문 명예교수는 ‘절 옆에 새겨져 있는 것은 마애불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곧장 최 노인이 알려준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원이나 마름모 등 기하학적 문양들이 보였다. 그 아래에는 ‘랑(郎)’ 자가 무수히 있었다. 직감적으로 문 명예교수는 ‘이곳이 화랑들이 성인식을 했던 화랑의 유적이구나’라고 생각했다. 그곳에서 그는 건탁을 하며 4~5시간을 조사했다. 그날이 1970년 12월 24일로, 반구대 암각화 중 하나인 천전리 암각화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다.

1년하고 1일 후인 1971년 12월 25일 문 명예교수는 1~2km 떨어진 대곡리에서 암각화를 발견한다. 불교미술사학도였지만, 암각화 발견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10년을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암각화 연구에도 매진했다. 그렇게 내놓은 것이 1984년 〈반구대 암벽 조각〉이라는 역작이다. 원효 스님의 주석처를 찾겠다는 원력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벽화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반구대 암각화 발견의 일등공신이자 주역은 원효 스님입니다. 원효 스님이 주석했다는 반고사를 찾다가 발견됐으니까요. 그 다음이 〈삼국유사〉를 통해 원효 스님의 이야기를 전한 일연 스님, 그리고 경주 골동품 상인, 최경환 노인이 반구대 암각화를 발견하게 했죠. 저는 이분들이 이끄는 대로 갔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의 힘이죠.”

반구대 암각화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올라가 있으며, 오는 7~8월 경 최종 등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명예교수는 “반구대 암각화는 신석기시대부터 신라시대까지 우리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이자 미술사의 기록들”이라며 “등재는 확실하다”고 확신했다.

“천전리 암각화를 보면 기하학적 문양들이 많은데, 이는 ‘문자’입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내려온 우리의 문자이자 신라 골필의 원형이죠. 문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청동기는 역사 시대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신라 통일의 기반을 만든 사람이 진흥왕인데 천전리 암각화는 신라왕실 김 씨들의 예배처였을 겁니다. 청동기와 신라의 역사와 문자가 있는 곳이 천전리 암각화입니다. 대곡리 암각화는 신석기의 유적입니다. 고래부터 멧돼지, 호랑이까지 바다, 육지동물 200여 점이 그려진 벽화는 세계에 유래가 없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들은 신석기부터 신라까지 한반도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불교사 연구하려 시작했던 공부
황수영 선생 만나며 미술사 전환
동국대博 학예연구사 재직하며
불적조사 중 반구대 암각화 발견
“암각화 발견 공신은 원효 스님”

80대지만 연구할 땐 여전히 현역
쌍계사 등 전각, 불상, 불화 연구
“불교미술사는 종합적 학문” 강조
새로운 불교미술 위해선 연구 필요
“종단 내 ‘불교유산원’ 설치돼야”



문명대 명예교수가 동국대 박물관 특별전 개막식에서 자신이 발견한 대곡리 암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명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문화유산 연구에 헌신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사진은 훈장 수훈 모습.

‘한국 최대 선사 유적 발견’이라는 유래가 없는 성과를 냈지만 문 명예교수의 본업은 ‘불교미술사학자’다. 역사학자가 되고 싶던 그는 집안에 반대에도 경북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입학했고, 대구 지역 사찰 대학생회에서 활동하며 불연(佛緣)을 이어갔다.

본격적으로 문 명예교수가 불교미술사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군 제대 후 경북대 박물관에 근무하면서부터다. 박물관에서 문 명예교수가 한 업무는 유물 카드 정리였다. 그는 수만 점의 유물을 실측하고 특성을 파악하며 미술사의 기초를 알게 됐다. 경북대 대학원에서 ‘한국 석굴사원 연구’를 석사학위 논문으로 쓰면서 본격적으로 불교미술사학자의 길을 걷게 됐다.

박사학위를 동국대에서 받은 것은 황수영 동국대 교수와의 인연 때문이다. 국내 오악(五岳)을 중심으로 진행된 유적조사에 경북대 박물관 간사로 참여했던 그를 황 교수가 눈 여겨 봤고, 석사 이후 동국대 진학을 제안했다. 이에 문 명예교수는 망설이지 않고 동국대로 진학했다. 그렇게 나온 것이 문 명예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석굴암 불상조각 연구’다. 석굴암 내 전체적인 불상 조각에 대해 연구한 것은 문 명예교수가 처음이다.

‘불교미술’이라는 외길을 걸은 그가 보인 연구 성과는 가히 방대하다. 불교미술 관련 저서만 50여 권, 논문만 300여 편에 달한다.

우리나라 최초 불화 개설서인 〈한국의 불화〉(1977)는 관련 분야 연구를 위한 필독서이며, 〈불교미술개론〉(1980)은 최초의 불교미술개론서이기도 하다. 〈한국조각사〉(1980)와 〈한국불교미술사〉(1997)도 관련 분야 개론적 기틀을 만든 중요한 연구서로 평가 받고 있다.

최근에는 불교미술의 개론적 기틀을 잡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불교미술개론〉을 세상에 내놨다. 이 책은 1980년 편찬한 〈불교미술개론〉과 이를 수정·보완한 〈한국불교미술의 형식〉을 새로 수정해 간행한 것이다. 거의 20년 만에 리뉴얼한 것이다.

개론서인 만큼 이 책은 불교미술의 이해부터 건축·불상·불화·공예까지 한국의 불교미술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도판 사진들은 전부 컬러로 교체했으며, 불복장과 같이 새로운 연구 성과들도 반영했다. 불교의 수(數) 개념도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또한 60여 개의 각주와 190여 개의 도판 리스트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현재, 문 명예교수는 불교조각의 역사를 망라한 ‘불교조각사’ 집필에 매진 중이다. 이는 1977년 발간했던 〈한국조각사〉를 바탕으로 한반도 불교조각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해내는 대작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문 명예교수의 저작 작업은 한국불교미술의 이론적 뼈대를 형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난 2021년 발간한 한국불교회화사 개론서인 〈한국불교회화사〉와 올해 발간한 〈한국불교미술개론〉, 발간 추진 중인 〈한국불교조각사〉 〈한국불교미술사〉까지 나오면 한국불교미술 전반에 걸친 개론서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조각사〉는 현재 다섯 차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조각 관련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를 반영하다 보니 수정할 부분이 많아졌어요. 어떻게든 올해 안으로 발간하려고 합니다. 개론서들을 통해 독자들이 불교미술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문 명예교수에게 최근 연구 주제를 묻자 “사찰을 중심으로 한 불교미술 연구”라는 답이 바로 돌아왔다. 지난해부터 쌍계사를 중심으로 건축, 조각, 회화, 공예를 집중적으로 조사·연구를 진행 중이다. 올해 9월 중에는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학술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문 명예교수는 ‘불교미술’이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사찰을 구성하는 요소에 건축, 조각, 회화, 공예 등이 모두 포괄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학들에게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볼 것을 조언했다.

“요즘 공부하는 제자들을 보면 너무 좁게 공부하려고 해요.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분야 밖에 몰라요. 선생이라고 하면 넓게, 분야를 아우르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시적이고 통찰적인 안목이 필요하죠. 저는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넓게 보고, 깊게 공부하라.”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문화유산 정책에 불교계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다. 이에 문 명예교수는 “불교미술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종단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로운 불교미술을 하려면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사찰 불사를 해도 이제는 농촌 사찰인지, 도심 사찰인지를 구별해서 해야 하잖아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면, 전통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기반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조계종단에 불교음악원처럼 불교유산연구원, 불교유산위원회 같은 연구 전문 조직 발족을 제안해왔습니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와 박물관이 있지만, 이는 발굴조사와 전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종단 차원에서 불교미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 말미, 85세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을 묻는 기자에게 문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뭐든 꾸준해야 해요. 공부도 건강도. 꾸준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수적천석(水滴穿石).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노력은 꾸준한 원력을 이루는 길이다. 문 명예교수는 학문을 통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❻ 윤동주의 '서시'



▶한줄 요약
올해로 윤동주 시인이 서거한 지 80주년이 된다. 윤동주는 불성, 양심의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간 시인이었다.

밤하늘 빛나는 별, 양심 그리고 불성

〈佛性〉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마음엔 양심이라는 별이 빛나
양심의 불교적 강조가 '불성'
윤동주, 양심의 별을 노래하며
죽어가는 모든 것 사랑한 시인

부끄러움이란?

글을 쓰기 위해 영화 〈동주〉를 다시 보았다. 2016년 개봉한 이래 몇 차례 반복해서 볼 만큼 울림을 준 작품이었다. 넷플릭스에 들어가니 이런 문구가 눈에 띄었다.

"펜을 든 동주와 총을 든 몽규. 비극의 시대를 살아가는 둘의 방식은 달랐지만 같았다. 동주는 시를 통해 아파했고, 몽규는 행동으로 저항했다. 일제강점기, 평생을 함께한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빛나는 청춘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영화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는 멋진 문장이었다. 일제강점기라는 지옥 같은 시대를 살면서 몽규는 총을 들어 저항했고 동주는 시를 쓰며 시대와 아픔을 함께했다. 방식은 달랐지만, 일제로부터 독립을 이루겠다는 마음만은 둘일 수 없었다.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말을 들으니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시를 쓰기를 바라고 시인이 되기를 원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앞장서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만 한 게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 하겠습니다."

영화 〈동주〉에서 일본인 형사가 재일조선인을 규합해서 반군조직을 결성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라고 했을 때 그가 한 말이다. 동주는 서명을 거부하고 대신 조서를 찢어버린다. 이 장면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독립군처럼 조직을 결성해서 무장투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시를 쓰면서 저항했고 일본 형사 앞에서도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일 만큼 당당하지 않았던가. 그가 이육사와 함께 '민족시인'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동주는 일제강점기를 살면서 시를 쓰고 앞장서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다고 한 것이다.

당시는 일본제국주의의 회유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변절하는 문인들이 많았다. 춘원 이광수가 대표적 인물이다. 그들은 펜을 들어 일왕을 찬양하고 조선 청년들이 태평양전쟁에 앞장서야 한다고 외쳤다. 전혀 부끄러움을 모른 채. 그런데 일제에 저항하다 세상을 떠난 동주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에 울림과 의문이 함께 밀려왔다. 그가 느낀 부끄러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이번 글의 화두다.

윤동주는 스물아홉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 간 시인이다. 고종사촌인 송몽규와 함께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조선인 학생 그룹을 조직했다는 혐의로 체포되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갇힌다. 그곳에서 윤동주는 건강이 악화되어 해방을 6개월 앞둔 1945년 2월 16일 세상을 떠나고 만다. 사인은 뇌일혈이라 하는데, 생체실험의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설이 많다.

이처럼 비극적인 삶을 살다 간 윤동주가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게 아픔으로 다가왔다. 그는 일본으로 떠나기 전 깊은 고민에 빠진다. 유학을 위해서는 창씨개명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때 정지용 시인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말하면서 동주를 격려한다.

"윤 시인,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운 걸 모르는 놈들이 더 부끄러운 거지."

영화 〈동주〉의 대사를 인용해 보았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해도 시인의 마음속에 남은 부끄러움은 어쩔 수 없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정지용은 부끄러움의 핵심을 잘 전해주었다. 누구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만, 아무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이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양심이 작동할 때만 나오는 감정이다.

오늘의 시 '서시'는 그 유명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작품이다. 알려진 것처럼 윤동주가 사망한 후 발표된 유고 시집이다. 한국인이라면 모르기 힘든 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문학적 가치도 높고 많은 이들이 좋아한다. 원래는 제목이 없어서 '무제(無題)'라고 했는데, 시집 첫 부분에 나와서 서시(序詩)라 부른 것이 오늘까지 제목처럼 인식되고 있다.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읽어본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 걸어가야겠다 /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佛性, 양심의 별

영화 〈동주〉를 보고 곧바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주문했다. 1948년 출간한 초판본과 1955년 증보판 표지가 인상적인 영인본이다. 오래된 디자인과 인쇄된 글씨 또한 투박했지만, 당시 시인의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 구입한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별 헤는 밤'을 비롯하여 '새로운 길', '참회록' 등이 실린 시집이다. 읽으면서 자꾸만 스스로 묻게 된다. 도대체 시인에게 부끄러움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불교와 어느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끄러움은 양심이 작동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부끄러움을 모르지만, 이 마음이 움직이면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우리는 괴로워한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문득 철학자 칸트가 생각났다. 그 누구보다 양심을 강조한 철학자였기 때문이다. 그의 묘지명에 쓰인 글을 잠시 인용해본다.

"생각하면 할수록 언제나 감탄스럽고 경건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고, 다른 하나는 가슴속에 빛나는 양심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참으로 아름다운 문장이라는 생각이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사람들의 마음에도 양심이라는 별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노래다. 양심이란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마음이다. 후천적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품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심장이 뛰거나 맥박이 평소보다 빨라진다. 양심이 작동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만약 거짓말이나 나쁜 짓을 해도 신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양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이 양심을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불성(佛性)이 된다. 모든 사람은 본래 부처(佛)의 성품(性)을 갖추고 태어난다고 불교에서는 강조한다. 인간의 본질은 중생이 아니라 부처라는 뜻이다. 흔히 불교를 믿는 이들을 가리켜 불자(佛子)라고 부른다. 단순한 불교인, 불자(佛者)가 아니라 부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뜻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자들의 정신적인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셈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아들과 딸은 부모를 닮는다. DNA가 같기 때문이다. 불성이 바로 부처님께 물려받은 우리의 DNA다.

불자들은 수계를 하면 법명을 받게 된다. 예컨대 필자의 이름은 이창구지만, 법명은 일야(一也)다. 개인적인 성씨와 법명을 합해서 '이일야'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부처님의 성씨를 따라 석일야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본바탕이 부처라 해도 불성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그저 중생으로 살 뿐이다. 불자들이 절이나 명상, 염불 등의 수행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불성을 작동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불성이 제대로 작동하면 우리는 작은 잘못에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시인이 지적한 것처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한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발원하는 것이다. 삶의 질적 변화는 이때 찾아오는 선물과 같다. 윤동주가 '참회록'이라는 시를 쓴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불성이 다름 아닌 칸트가 말한 '가슴속에 빛나는 양심'의 별이다.

윤동주의 시에는 별이 종종 등장한다. '별 헤는 밤'에서도 시인은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를 가슴속에 깊이 담아둔다. 그에게 별은 어쩌면 자신의 온 삶을 지탱한 양심이었는지 모를 일이다. 그 귀한 보석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시인은 작은 몸짓 하나에도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 아니었을까. 동주는 불성, 양심의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간 시인이었다. 오늘 밤에도 그 별이 바람에 스치고 지나간다.

올해로 윤동주 시인이 서거한 지 80주년이 된다. 지난 2월 시인이 옥사한 일본 후쿠오카 교도소 근처 한 공원에서 그를 기리는 추도식이 열렸다는 기사를 접했다. 2025년은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지 120년이 되는 을사년이기도 하다. 당시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의 양심은 작동하지 않았다.

몇 해 전 어느 이웃종교 성직자는 삼일절을 기념하여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버젓이 걸었다. 부끄러움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행위들이다. 〈중용〉에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기에 가깝다(知恥近乎勇)"고 하였다. 나약하고 비겁한 그들과 달리 윤동주는 용기 있는 의인이었다. 오늘의 우리가 그를 기억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3천년에 한번 피는 꽃
우둠바라꽃/양자역학의 완성
이 세상은 그물망처럼 심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
과학자들이 과거 100년 이상을 풀지 못한 양자의 중첩과
얽힘 현상을 어떻게 간단명료하게 풀 수 있었을까
최준권 지음/신국판/무선/272쪽/값16,000원

자아를 되찾고 자신을 구하는 삶의 길
운명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물레방아처럼 반복해서 돌며 변화를 통해
윤회하고 있다. 넓은 눈으로 창조와 진화를 관찰하면
이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준권 엮음/신국판/무선/264쪽/값16,000원

부처님의 말씀으로 엮은 깨달음의 세계
석가의 가르침
3천년 전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인 극락에서
머무시던 부처님의 영혼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받아 왕자로 태어나셨다.
최준권 엮음/ 신국판/무선/256쪽 / 값16,000원

지성의샘 / 서울 중구 을지로14길 16-11 / TEL. 02-2285-0711 / FAX. 02-338-2722 / 이메일 gonggamsa@hanmail.net

2025년 4월 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25호 | 15 | 전면광고

바른 도를 잘 닦아 익히어
진실한 법의 그 모양 알고
그 도량에 굳건히 머무르면
부처님의 보리를 성취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화엄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도
- 부지 : 700평
- 건평 : 150평 외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매가 : 25억

- 위치 : 부산시
- 면적 : 700평, 전통사찰
- 법당 : 30평, 요사60평
- 매가 : 35억
- 산 밑, 주차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매도, 매수,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 / 법당 20평 산신각 / 요사, 별채 50평
- 가액 : 2억2천
- 수도 가스난방

010-2369-3382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갓바위 뒷길 근처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4억5천(절충가능)

010-5804-5100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 67평 동불 삼존불
- 보증금 : 5000/월세 : 180만원
  시설물 : 2500만원 상당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300m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남녀화장실

010-3102-5102

사 찰 안 내

★전통사찰, 요사채불사 진행중★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전통사찰 선법사)
- 평 수 : 1,700평(법당, 산신각, 요사채, 화장실, 주차장 등)
- 가 액 : 상담 후 결정

보물 981호 마애약사불좌상

010-3340-265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1000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포교원 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8000만원
- 전세가능 : 보 4000 / 월세 40
- 청정 기도도량 입니다

010-2807-0509

포교당 안내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주 변 : 상가거리, 위치 좋음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 유동인구 많음)
- 규 모 : 30평(3층)
  – 삼존불, 원불, 영단, 신중단
- 보증금 : 5백만원(월세 60만원)
- 시설비 : 1200만원

010-6416-0663

사 찰 안 내

- 위 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흑석산 중턱
- 대 지 : 350평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 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 가 액 : 답사 후 결정

010-7710-8334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전통사찰 법당 30평 (웅장함) (단청 : 문화재위원 작품)
- 경남 창원시 변두리소재 명당
- 토지 7천평(추가구입 가능)
- 수목장 사용 최최고위치
- 4차선 국도에서 150m
- (대형버스 완전 진입가능)
- 가격 : 15억원(대출 11억원)
- 불기등등은 별도산정

– – 포교당 안내 – –

- 대구시 중구 중앙통 접
- 대구시 중구 남일동
- 40년 포교활동 중
- 주역에 능통한 분
- 큰 인연이되면 금액불문
- 신도 잘 보살필 분
- 1억 미만 암자와 교환 가
- 2025년 4월 05일 한

053-745-9999,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3천(대출 2억 13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납골당 · 봉안당 허가 가능
- 가액 : 8억 절충

010-4599-010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휴대세교길 234번길 24 대원사
- 법당 30평, 공양간 20평, 요사채 방2 거실1
- 가액 : 3억 2000만원(절충가능)

041-548-7181
010-3423-7181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 대지 : 약 320평
- 건물 : 1, 2층 – 1층 26평, 2층 법당 20평, 요사채 15평(거실2칸, 해우소 3칸)
-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8914-1762

토굴암자 안내

- 주소 : 경북영천시 화남면 온천길 114 -3 무영사
- 대지 : 85, 법당 : 16, 요사 : 12
- 금액 : 4300만원

이곳은 소쿠리터라고합니다. 가장중심의자리에있어서 안정적 기운이맑고 편안한터입니다. 이도량은 비구니스님이거주하시면 잘어울릴것입니다.

010-8987-4570

사찰(토지) 급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 주택 40평(법당 이용)
- 대나무숲 250평
- 주차 100대 가능
- 토지 1505평

010-3565-1151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동김해ic서 5분 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6898-9114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2억원 (절충 가능)

010-4835-1739

불교상가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신동 2차선 도로접(인북로 325번지)
- 1층 상가임대 현재 불교용품 판매점
- 우리옷(생활한복), 차, 다구, 선물용품. 현재 영업중
- 개인 사정상 급임대
- 임대보 1천5백만 월35만원 (시설비 권리금3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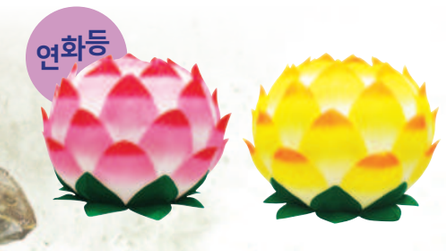
010-7298-119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자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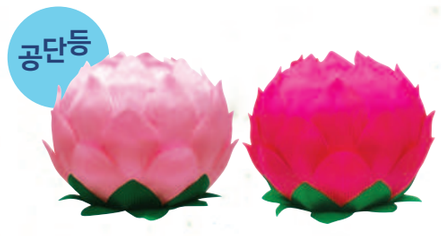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연등시공





연등 자동 승강장치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2025년 4월 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

생활안내

1525호 | 16 | 전면광고

만약 근기가 총명하고 지혜가 밝으며
많이 듣고 널리 알아서
불도를 구하는 이 있거든
이 같은 사람에게는 경을 설할지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법화경 방편품》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문화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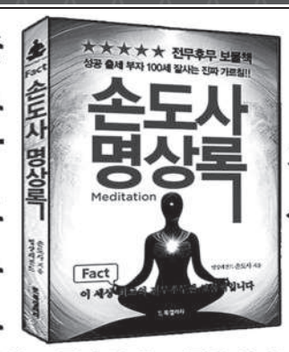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사찰행사(불교의식)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무, 전통살풀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연암당 스님
010-6219-4757

손도사 유튜브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요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사천시 새고개2길 47 (삼천포)
- 대지 : 265평 (법당20평 정동향)
- 요사 : 30평 (방3, 화장실2, 정남향) 3평(황토 찜질방 1동)
- 특징 : 대형e마트 도보3분 위치 30대주차, 마당까지 진입
- 가액 : 2억3천(地價만 계산했음)

010-8868-7017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상담 : 010-2090-403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태아령 유산낙태, 남 · 여 구별법(예방법), 산소 무덤 물찬곳, 송사 재판, 암, 자궁암, 유방암
- 이혼수, 부도 • 배우자가 일찍 죽는 상 • 귀신 붙은 상
- 자살상, 중풍, 뇌졸중 상, 자식이 일찍 죽는 상 • 조상기도특수비법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구성학
- 스님, 법사, 무당, 일반인, 특별책임 개인지도

상담문의 010-4014-8822 작명, 아기이름, 개명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개인지도

사)한국불교어산종 종도모집 안내

한국불교어산종은 영남범패 종단으로써 남성적이고 웅건함을 지니고 용맹 정진하는 수행자들의 기질과도 닮은 영남범패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 시켜갈 수 있도록 함께할 종도 스님을 모십니다.

범패 교육원 수강생 모집
의식 및 사물
(쉽게 배울 수 있는 악보로 수업)
총무원장 010-2665-9108
어산원장 010-3156-2211
'밀양영산재보존회'

사)한국불교어산종 총무원장

사찰전문 건축공사

1. 사찰 지붕공사(칼라 강판 · 판넬)
2. 일반주택, 빌라, 상가 (기와/슬레트, 슬라브) 지붕공사
3. 요사채 창고 등 신축 및 수리
4. 전기판넬, 보일러 등 난방 공사
5. 전기배선, 조명 공사
6. 진입로, 옹벽, 기타 토목공사

*공사관련 모든 사항 상담 가능
대성 010-3817-8075
개발 010-3824-0846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육임AI 순회 효능 설명회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⑦ '쌍갑포차'(2020)

불교는 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추구한다

"이 이야기는 ○○도 ○○ 지역에 전해오는 전설입니다"로 끝나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1977년에 시작했으니 얼추 50년 전에 시작해서 1989년까지 무려 578회가 방영되었고, 그 후로도 1996년(24화), 1997년(26화), 1998년(12화), 1999년(12화), 2008년(8화), 2009년(10화)까지, 요즘의 시즌제 드라마처럼 제작되어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전설의 고향〉이 다룬 전국 방방곡곡의 전설 가운데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귀신과 저승에 대한 내용이다. 새하얀 소복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밤이면 밤마다 사또를 찾아와 한을 풀어달라 애원하는 처녀귀신들을 보면 어린 마음에도 안타까웠고, 저승사자에게 끌려가 염라대왕 앞에서 혼쭐이 나는 악인들을 보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 저절로 마음에 새겨졌다.

세월이 흘러, 마치 〈전설의 고향〉의 대를 잇듯 나타난 드라마가 〈쌍갑포차〉(2020)이다. 이 드라마에는 '그승'이라는 독특한 세계가 있다.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는 '꿈속 세계'인데,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 월주(배우 황정음)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주는 500년 전, 이름난 무당의 딸이었다. 원인 모를 병을 앓는 세자를 살려달라는 중전의 부탁을 받고 꿈속 세계로 들어간 월주는 억울하게 죽은 혼령들을 위로해 주고 세자를 살려낸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 세자에게 수청을 들었다는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어머니가 대신 죽임을 당한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은 월주는 세상을 저주하며 마을 어귀 신목(神木)에 목을 매달아 자결한다.

저승에 간 월주에게 염라대왕(배우 염혜란)은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신목을 더럽힌 탓에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고 10만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죗값을 치르기 위해 인간 세상에 다시 내려가 10만명의 한을 풀어주라고 명령한다.

그 후 500년 동안 월주는 99,990명의 한을 풀어주었고, 남은 것은 단 10명.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도무지 실적이 오르지 않는다. 염라대왕은 앞으로 한 달 안에 10명을 채우지 못하면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최후통첩과 함께, 감시 역할로 저승경찰청 형사반장 출신의 귀 반장(배우 최원영)을 파견한다. 마음이 급해진 월주는 손이 닿기만 하면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드는 한강배(배우 육성재)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영입해,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는데….



JTBC 드라마 '쌍갑포차'.

불교에서 환생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냐
불보살은 윤회 않지만 늘 중생 곁에 있어
대중미디어 속 '불교' 의도 꼼꼼히 살펴야

그런데 이들은 사실 월주와 전생에 얽힌 사람들이다. 귀 반장은 500년 전 월주를 사랑한 세자였다. 월주의 죽음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버린 죄로 저승경찰이 되었고, 월주가 운영하는 쌍갑포차에 자청해서 온 것이다. 그리고 강배는 월주가 목을 맬 때 뱃속에 있던 월주와 세자 사이의 아이였다. 그러니 쌍갑포차에 모인 세 사람 모두 전생의 가족인 셈.

드라마의 소개 글에 이런 표현이 있다. "그렇게 인연과 업보는 돌고 돈다는 세상의 이치야말로 우리가 왜 세상을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삶이 고달픈 중생들이여, 쌍갑포차로 오라! 까칠하지만 나설 땐 나서는 이모님 월주와 어리숙하지만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알바생 강배가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인연, 업보, 중생 같은 말들을 보면 꽤 불교적인 느낌이 든다. 뿐만 아니라 살았을 때 지은 죄를 비춰주는 업경대를 가지고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그 유명한 염라대왕까지 등장하니 더욱 그렇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이 땅에 불교가 전해지고 나서 정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불교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선 구분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환생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쌍갑포차〉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잘 가서 금생의 기억을 지우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금생에 미련을 품거나 여한이 있으면 저승에 가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기 때문에 환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염라대왕의 명령을 받은 월주가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럼 불교에서는 환생을 어떻게 바라볼까? 불교에서도 윤회와 환생을 이야기하지만, 불교의 입장에서 환생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 불교는 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사복(蛇福)' 이야기를 보자. 사복 어머니의 주검 앞에서 원효 스님이 "태어나지 말라, 죽는 것이 괴롭다. 죽지 말라, 태어나는 것이 괴롭다"고 영가법문을 하자 사복은 말이 길다면서 "죽고 사는 것이 모두 괴롭다"고 단언한다. 이처럼 불교는 윤회전생을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는 가르침이다.

누군가는 티베트불교의 달라이라마는 계속 환생하지 않느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달라이라마는 윤회하는 존재가 아니다. 달라이라마가 중생계에 다시 태어나는 것은 업력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원력으로 인한 원생(願生)이다. 전생에 다 하지 못한 중생구제를 마저 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에 따라 환생하는 것이고, 생사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대로 생사에 뛰어드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점들을 놓치면 원생하는 존재를 단순히 윤회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셈이 된다. 불보살은 윤회하지 않는 존재이나 늘 중생 곁에 있음을 기억하자. 어른스님들의 다비 때 꼭 외치는 구호가 "빛으로 다시 오소서"가 아니었던가.

〈쌍갑포차〉를 비롯한 여러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사후세계가 언뜻 불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불교의 의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어느 때, 누군가의 상상력으로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그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염라대왕 앞으로 망자를 데리고 가는 저승사자라고 하면 누구나 새하얀 얼굴에 검은 도포를 입은 남자를 떠올릴 텐데, 이는 우리의 오랜 전통문화 속에 전해오는 것이 아니라 〈전설의 고향〉 담당 PD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졌다(〈유 퀴즈 온 더 블럭〉, 2021년 3월 3일). 더욱이 1980년 6월 3일 방송에 처음 등장하였으니 불과 50년도 되지 않은 역사를 가진 저승사자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요즘 부쩍 대중미디어에서 '성불'이라는 말이 많이 보인다. 아직 이승에 머물고 있으면 성불하지 못한 것이니, 성불하여 저승으로 잘 가라는 의미로 주로 쓰인다. '성불'이 불교 용어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쓰임은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고, 이때의 '성불'에 해당하는 우리 불교의 단어는 '천도'이다. 대중미디어를 불교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원효 스님 걸림없던 무애행
삼계교 선사 행장과 닮았다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⑬ 원효 스님과 삼계교

원효 스님과 삼계교의 접근은, 일본 역사학자 타무라 엔초(田村圓澄)의 〈동양학술연구〉 18-1 '일본불교와 조선'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효는 전국 곳곳을 누비며, 불교를 설하고 직접 지은 찬불가를 민중과 함께 부르고, 그에 맞춰 춤까지 추었다 한다. 의상과 비교해 보면, 의상이 부석사에서 화엄설법을 하는데 비해 원효는 취락, 실천불교에 전념한 것으로 삼계교신행의 계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 고찰 나라 도다이지(東大寺)를 창간한 행기 스님(行基, 백제왕족 13대 후손 추정)의 민중불교운동이 원효 스님의 뒤를 이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행기 스님에게 많은 힘이 되어 준 승정(僧正) 의연(義淵)과 관성(觀成), 변통(弁通) 등은 693년에 신라에 유학했으며, 율사 관지(觀智)는 689년에 신라에서 일본에 귀국한 승려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원효는 환속하여 속복을 입고 파계하였다. 삼계교 신행은 계를 버리고 노동에 종사하였지만, 이는 자신이 열등한 근기의 자각 때문이었지, 스스로 파계함은 아니다. 따라서 지계와 파계에 있어서도 원효와 행기는 대립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2002년 필자가 〈인도불교학회〉 50권2호에 밝힌 내용, '삼계교의 영향-원효와 행기를 생각하며'를 통해 원효와 행기의 관계를 조명했습니다. 일연(一然) 스님의 〈삼국유사〉 권4, '원효불기(不羈, 굴레에 매이지 않음)'을 보고자 합니다.

"원효는 계(戒)를 잃고 설총을 낳은 후, 스스로 소성(小性)거사라 하며, 큰 바가지(대호, 大瓠)를 지니며, 춤을 추는 등 기이한 형상으로 전국을 돌며 노래로 교화시키니 남녀노소가 모두 부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나무(南無)를 칭하였다."

이 같은 원효 스님의 행동이 삼계교의 모(模, 이름을 알 수 없는) 선사의 행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삼계 모(某)선사 행장시말(行狀始末)'에서 삼계 모 선사는 672년에 적멸하니 당시 원효 나이는 57세였습니다. '삼계 모(某)선사 행장시말'을 살펴봅시다.

"선사는 명상(名相)을 버리고, 계를 반납하고 환속해 무상의 법을 배우니, 어떤 이가 사(師)에게 묻기를, '양가죽을 두르고 단표(표주박)를 지님은 어떤 의미인가?' 선사 이르길, '불법에 있어, 양장을 입고 단표를 쥠에는 3종의 이익이 있다. 1은 풍한을 차단하며, 2는 우설(雨雪)을 막고, 3은 내가(內家)에서는 진귀한 옷이 된다'고 하였다."

모(某) 선사는 672년에 작고했고, 이때 원효는 같은 시대를 살아 왔기에 그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겠다고 추정됩니다. 속인들의 포교를 위해서 계를 반납하고 거사가 되고 단표(표주박)를 쥐고 유발(有髮)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나무불'을 외치는 삼계교 선사의 모습은, 비로 그대로 원효의 모습이라고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삼계교의 신행 구조 속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중불교가 아닌 취락불교, 시대적 화두인 대승불교의 흐름 속에 민중 구제를 위한 실천불교를 지향한 삼계교의 신행과 사상은 원효의 무애행과도 연결됩니다.

탄압을 받았지만, 민중 속으로 파고들었던 삼계교는 소설을 통해서 그 사상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삼계교 이야기와 그 사상을 소설로 담아낸 것이 〈명보기(冥報記)〉입니다. 이 소설의 저자는 당림(唐臨)이며, 그는 삼계교의 일등공신이었던 고경(高熲)의 외손자였습니다. 고경은 삼계교조인 신행에게 자신의 자택을 증여하여 진적사로 개조한 사람입니다.

〈명보기〉 저자 당림은 책을 저술한 목적과 기술의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 이야기를 누구로 부터 들었고, 어떤 관계로 듣게 되었는지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보기〉의 내용에는 "지금 성인이 가신지 오래되었고, 근기의 때도 또한 다르다. 만약 근기가 하인(下人)으로서 상법을 수행한다면, 법은 근(根)에 합당치 않다. 착도(錯倒)하지 말기를"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삼계교의 핵심적인 근기에 대한 행법(대근기행법)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자 당림은, 삼계교의 교리에는 깊은 조예가 없었다고 치더라도, 외삼촌 고경, 구씨(舅氏)로 부터 받아들인 이야기를 사실적인 서술의 형태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계교는 탄압으로 인해 곧바로 소멸되지 않았으며, 사상을 문학적인 형태로 전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송림사 주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대원산업
BULJE DAEWON CO.LTD

구 입 문 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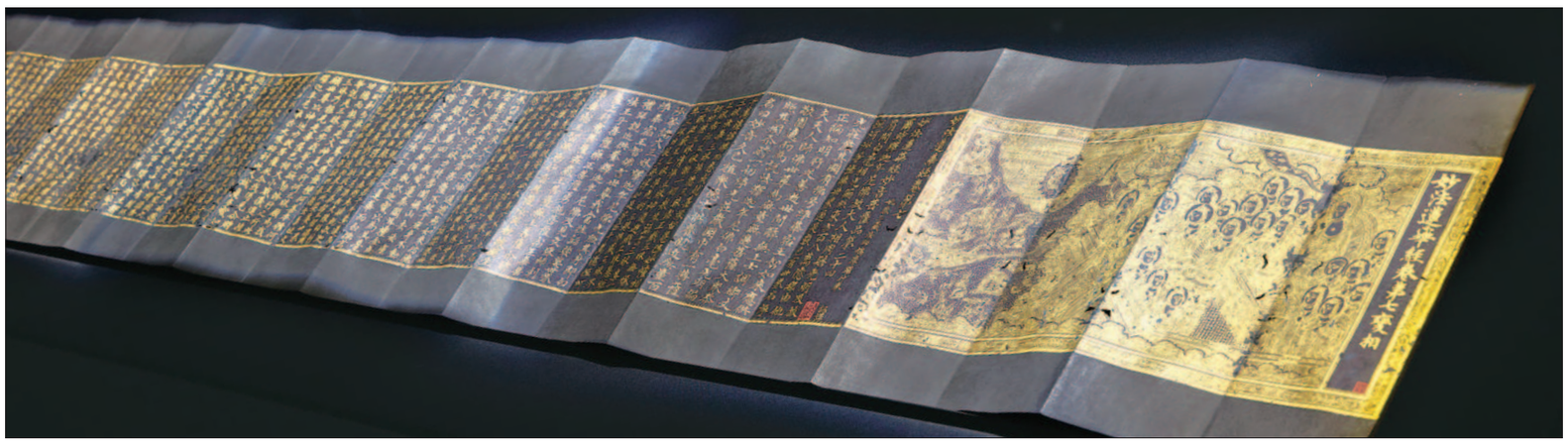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❼ 모든 여성의 수행이 용녀와 같기를: 어느 고려 귀부인의 염원



▶한줄 요약
일순 부처 모습 이룬 용녀는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에서 여성 구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화엄경〉과 〈법화경〉을 발원한 진한국대부인 김씨도 이 뛰어난 공덕으로 말미암아 용녀가 그랬던 것처럼 부처를 이루기를 꿈꿨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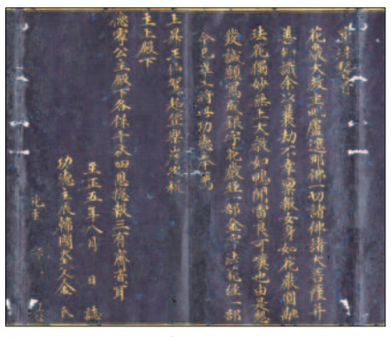
여성 구원 상징 '용녀' 보며 성불 꿈꾼 여인들

〈묘법연화경〉(이하 〈법화경〉)은 모든 존재에게 방편을 베풀어 성불의 길로 이끄는 경전이다. '경전의 왕'이라는 별명이 바로 수긍될 정도로 수승한 가르침을 담고 있지만, 공감하기 쉬운 이야기와 비유를 통해 누구에게나 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법화경〉의 묘한 이치이기도 하다. 수많은 불교 경전 중 〈법화경〉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에서 오랫동안, 가장 널리 믿어졌던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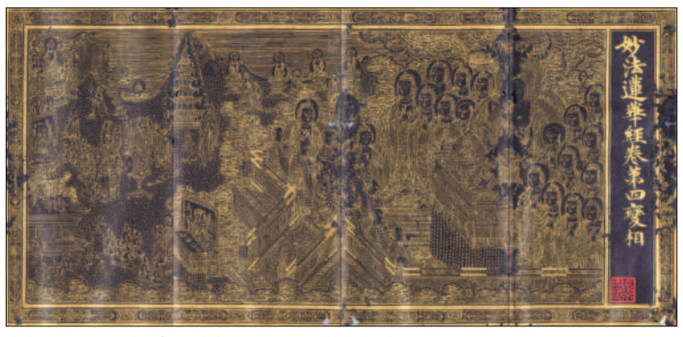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7〉, 고려 1345년, 절첩본, 감지에 금니, 각 32.3×11.5cm, 리움미술관 소장. 사진 제공=리움미술관

〈법화경〉을 이루는 총 28품(品)은 다양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중 제19품인 '법사공덕품(法師功德品)'에서는 〈법화경〉을 받아서 지니거나, 읽거나, 외거나, 해설하거나, 베껴 쓰면 마음이 청정해질뿐더러 그 모습에도 아름다운 변화가 생긴다고 말한다. 이처럼 〈법화경〉에서는 경전을 베껴 쓰는 서사(書寫), 혹은 사경(寫經)을 실천의 방법으로써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현재까지 전하는 우리나라의 사경 대부분이 〈법화경〉이란 사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7〉 중 발원문, 고려 1345년, 리움미술관 소장. 사진 제공=리움미술관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4〉 변상도, 고려 1345년, 리움미술관 소장. 사진 제공=리움미술관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5〉 변상도, 일본 헤이안시대, 12세기, 횡권, 감지에 금니, 전체 25.6×1005.8cm,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사진 제공=메트로폴리탄미술관

고려 후기 귀부인의 간절한 바람

고려와 조선시대의 여성들 역시 사랑하는 이들의 명복과 안녕을 빌고자 〈법화경〉 사경을 앞다투어 발원했다. 그중 리움미술관 소장의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1-7(紺紙金泥 妙法蓮華經 卷1-7)〉은 고려 후기의 사경 중에서도 매우 특별하다. 전체 28품을 일곱 권의 책으로 나누어 한 세트로 만든 것이나, 감색으로 물들인 최상급의 종이를 사용해 사경을 꾸민 것, 각 권의 앞쪽에 변상도(變相圖)를 실은 형식은 고려 후기의 다른 사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전체 일곱 권이 함께 전하고, 그림은 물론 글씨도 전부 금가루로 적을 만큼 재원과 공력을 투입한 것은 이 사경의 가치를 높여 준다. 그러나 리움 소장 〈법화경〉의 특별함은 제7권 말미의 발원문 속에 담긴 어느 고려 귀부인의 마음 한 조각에 있다.

발원문에 의하면, 이 사경은 1345년에 진한국대부인 김씨(辰韓國大夫人 金氏)가 충혜왕(忠惠王, 1315-1344)의 영가천도를 기원하는 동시에 충목왕(忠穆王, 1337-1348)과 그 모후인 덕녕공주(德寧公主, 1322-1375)를 축원하고자 조성한 은자 〈화엄경〉 1부와 금자 〈법화경〉 1부 중 하나이다. 우선 두 부의 경전을 동시에 발원했다는 점에서 공덕주인 진한국대부인 김씨의 깊은 신앙심을 엿볼 수 있다. 불사에 드는 정재(淨財)를 마련하고, 불사를 수행할 장인을 동원할 수 있었던 그녀의 역량도 짐작할 수 있다.

발원문에 보이는 '국대부인'은 고려시대에 왕비와 공주 등 내명부(內命婦)의 여성을 제외한 지배층 여성에게 나라가 내린 가장 높은 칭호이다. 국대부인의 칭호 앞에는 진한(辰韓)이나 변한(卞韓)처럼 역대 국명을 붙여서 수식했다. 국대부인은 본래 후비(后妃)의 어머니와 할머니, 국왕의 외할머니 등을 봉작하거나 추증할 때 수여한 외명부(外命婦) 정3품의 칭호였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는 그 수여 대상이 고위 권력자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관료의 어머니와 처까지 확대되었다. 외명부 칭호는 지배층 여성에게 명예로운 칭호를 내려 공적 지위를 부여하는 일이었다.

남성으로 몸 바꾸고 곧바로 깨달음 얻은 용녀
법화경 속 성불 장면서 역동성 엿볼 수 있어

김씨는 내밀한 소망을 담은 발원문에서조차 법명(法名)이 아닌 '진한국대부인'이란 칭호로서 사회 속 자신의 위치를 드러낼 만큼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다. 역사서나 문헌에는 진한국대부인으로 봉작 받은 여성이 몇 명 등장하지만, 이 중에 김씨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경전이 완성된 1345년 8월은 충혜왕이 승하하고 충목왕이 즉위한 다음 해에 해당한다. 발원문에서 충목왕과 덕녕공주를 특별히 축원한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경을 발원한 진한국대부인 김씨는 충혜왕대에서 충목왕대에 걸쳐 고려의 정국을 좌우했던 고위 관료의 어머니나 처로 짐작된다.

이처럼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이 발원문에서 이전 겁의 불행으로 인해 여자의 몸을 받았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법화경〉 제12품 '제바달다품(提婆達多品)'의 가르침과 무관하지 않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사갈라용왕의 여덟 살 난 딸은 지혜가 남달라서 용궁에서 문수보살이 설하는 〈법화경〉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리불은 여성의 몸에는 다섯 가지 장애가 있어서 부처가 될 수 없다고 설파한다. 바로 잘 알려진 여인오장설(女人五障說)이다. 용녀(龍女)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몸을 남성으로 바꾸고, 곧 깨달음을 이루었다. 사리불과 그 자리에 모였던 이들이 보란 듯이 말이다. 용왕의 딸은 이어서 남방의 무구세계로 가서 연화좌에 앉아 부처님의 모습을 갖춘 뒤 일체중생을 위해 불법을 설했다고 한다.

용녀의 성불은 남성으로 일단 성을 바꾼 후에야 이루어진 조건부 성불이었다. 그러나 용녀의 성불은 찰나에 이루어진 성불이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조차도 한량없는 겁 동안 힘든 수행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성불하셨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용녀의 성불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용녀로 상징되는 '제바달다품' 속 여성의 몸은 일순간에 성불할 수 있는 수승한 법기(法器)이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용녀의 이야기는 남성 출가자의 성불이 당연시되던 고대와 중세 사회에서 출가하지 않은 여성의 성불을 제시했기에 많은 여성들에게 환영받았다.

금빛으로 빛나는 성불의 순간

중세 동아시아의 〈법화경〉 변상도에서 용녀의 성불 장면은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법화경〉에 나오는 수많은 비유와 이야기 중 한정된 화면의 변상도에 빠지지 않고 묘사되는 중요한 도상(圖像)으로 확립된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용녀의 성불 이야기가 〈법화경〉을 받아서 지니거나, 읽거나, 외거나, 해설하거나, 베껴 썼던 이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단 뜻이다. 그렇다면 사경의 변상도에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표현되었을까?

리움미술관 소장 〈법화경〉 제4권 변상도에는 왼쪽 위에 이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이 장면의 좌측에는 석가여래와 권속이 그려져 있고, 우측에는 머리에 관을 쓰고 소매가 긴 옷을 걸친 채 바닥에 무릎 꿇고 앉은 용녀가 보인다. 용녀는 두 손으로 찬란한 빛줄기를 뿜어내는 보주(寶珠)를 여래에게 헌상하고 있다. 금빛으로 찬연한 이 보주는 여덟 살이란 어린 나이, 축생인 용이자, 여자의 몸이라는 겹겹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용녀가 성취한 깨달음을 상징한다. 그 오른쪽으로 용녀가 단박에 남자의 몸으로 바뀌는 장면이 흥미롭게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구름 위에 그려진 인물은 정작 명확한 형상을 파악하기 힘들다. 장인은 남자로 변한 용녀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려 애쓰지 않고, 활달하고 속도감 있는 필치로 변화 그 자체를 역동적으로 그려내었다. 이 같은 도상의 배치와 묘사 방식은 고려 후기의 다른 〈법화경〉 사경 변상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일본 헤이안 시대의 〈법화경〉 사경 변상도에는 동일한 순간이 다른 방식으로 그려져 있어 흥미롭다. 이 두루마리에는 〈법화경〉 제12품 '제바달다품'에서 제15품 '종지용출품(從地涌出品)'까지가 감지 위에 금자로 적혀 있다. 변상도의 왼쪽 위에는 독수리 형상으로 표현된 영축산(靈鷲山)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여래와 권속들이 그려져 있다. 그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바다 밑 궁전에서 나와 여래에게 빛을 뿜어내는 보주를 공양하는 용녀가 묘사되어 있다. 변상도 우측 상단에는 석가모니여래가 전생에 한 나라의 왕이었을 때 〈법화경〉을 얻기 위해 선인을 찾아가 섬기는 일화가 그려져 있다.

일순 부처의 모습을 이룬 용녀는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에서 여성 구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화엄경〉과 〈법화경〉을 발원한 진한국대부인 김씨도 이 뛰어난 공덕으로 말미암아 용녀가 그랬던 것처럼 부처를 이루기를 꿈꿨으리라.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조교수〉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 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차를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윤인수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세시간 염불도 거뜬 !

하던 내 체력! 이제는 30분 염불에도 무리가 오니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

그러나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마이크와 2m 멀리서 세시간 힘빠진 작은 염불 소리에도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염불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휘감는 특수염불마이크를 지금 소개합니다.

현장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마이크 : 이태리 성악전문 수입품(Schoeps Martin) (마이크소리 테스트비용 한잔!)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대행 스님

상대를 탓하기 이전에 나를 한번 돌아다보고 주인공에 맡기라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에 이렇게 앉아 봤습니다. 어저께서부터 이 고깃덩어리가 같이 한자리를 하면 한자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에 있다면 가장 가깝고 마음에 없다면 가장 먼 것입니다. 가깝게 있어도 먼 것이죠. 이런 도리를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불법이라 하면 이 법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정에 여러분이 행하시는 데에, 바로 그 살아나가는 생활이 불법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생활하면서 좀 더 느끼고 알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대로 실험을 통해서 좀 더 지혜가 늘어 가고 알게 되고 이러는 것입니다. 또 생활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여러분과 같이 이 우주와 더불어 그냥 쉴 사이 없이 물 흐르듯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이런 것이 이렇고 저런 것이 저렇다고 마음을 묶어 놓고 꼼짝 못 하고 애를 쓰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입니다, 이런 말씀 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질문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하실 분은 없습니까? 이 뉴욕이라는 데는 더군다나 더 정신 계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죠. "부처님 법을 어찌 계발이라고 하느냐?" 이러겠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계발이라고 하는 게 제일 쉽게 느껴질 것 같아서 말입니다. 없습니까?

질문자1(여) 스님, 안녕하세요. 어저께 스님 법문 들었을 때 넘어진 사람도 그 사람이고 일어나는 힘도 그 안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몸에 어떤 병이 일어나면, 기업 하시는 분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일어나고 또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낫지 않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큰스님 그것을 대답하기 이전에, 어저께 말하던 그것을 되풀이하면서 다시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그럼. 우리가 바닷물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다처럼 큰 그릇을 가지고 있다면 담아도 손색이 없지만 작은 그릇이라면 큰 바닷물을 집어넣어도 그것은 담기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차원에 따라서 그 말도 여러분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쓸 때에, 이런 물 뜰 때는 컵을 쓰고 또 (음료수 병을 들어 보이시며) 이런 걸 담을 때는 요런 병을 쓰듯이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쓰는 것이죠. 그것이 살림살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와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고 말씀드리겠어요. 우리는 네 가지의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몸속에 또 지수화풍이 들어 있으면서 별처럼 그 의식이 찰나찰나 나투면서 소임을 맡아 가지고 움죽거리고 있죠. 그것을 모두가 한데 합쳐서 지수화풍이라고 부르죠? 지수화풍의 그 자원이 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그 연관 때문에 광력과 전력과 자력과 통신력을 충만하게 쓸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게끔 근거지를 만든 거죠.

우리가 지금 내부로나 외부로나 다 쓸 수 있고, 천체물리학이나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전부 할 수 있게끔 만든 그 자원이 무엇인가? 바로 그겁니다. 지수화풍으로부터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 통신력이 충만하게 인간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들이고 내면서 마음대로 기를 조절할 수 있고, 기를 넣을 수도 있고 어떠한 약체에 에너지도 반분해서 넣을 수 있고, 즉 말하자면 A형에 A형을 빼다가 보조를 해 주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체 만물만생 그 모두가 약이 아니 되는 게 없어요. 모두가 약이죠.

그렇게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재료를 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수레바퀴라고도 하지만 불바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이름해서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요걸 차근차근히 알아듣기 쉽게 지금 얘길 하는 겁니다. 내가 쉽게 말한다고 쉽게 듣지 마시고 진심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생활에 지침이 될 테니까요.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연상하는 겁니다. 그건 시쳇말로 컴퓨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인간에게도 모두 주어져 있다. 컴퓨터에 다섯 가지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자동적으로. 그건 뭐냐? 컴퓨터는, 즉 말하자면 숙명통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살던 것이 입력이 된 것입니다, 컴퓨터에 입력이 다 돼 있습니다. 입력이 돼 있는데 입력이 된 것이 현실에 자꾸자꾸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저지른 게 아니죠. 그러나 지금 알고 저지르는 건 알고 나오게 돼 있고, 모르고 저지른 건 모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나온다고 보고, 또 거기 대두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업을, 즉 인과의 업을, 악업 선업을 다 지니고 나온 것은 바로 인과에 의해서 여러분의 몸뚱이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 자체가. 내 마음 한마음은 바로 지배인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자꾸 나오는 거니까 그 입력된 데서 나오는 거를,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든 내부에서 일어나든 모든 것은 거기에서 입력된 대로 나오는 거니까, 팔자 운명이라고 그러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 거기다 '팔자 운명도 없고 병 붙을 것도 없고 모든 것은 거기서 나오는 거다.' 하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시 입력을 할 때 먼저 입력이 됐던 팔자 운명은, 즉 인과로써 입력됐던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녹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놓는 동시에, 그것이 놓으면 놓는 대로 모든 게 앞서 것이, 과거의 것이, 내가 나오기 이전에 살던 것이 다 무너질 때에, 현실에 자꾸 넣으면 없어지고 자꾸 넣으면 없어지고, 이렇게 그릇이 빈다 이겁니다. 그릇이 비게 되면 나를 밝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를 밝게 볼 수가 있는 동시에 뭐가 거기서 나타나느냐. 바로 천안통, 보는 거. 천이통, 듣는 거. 타심통, 바로 남의 속을 아는 거. 신족통, 바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거. 이거를 팩스나 탐지기나 망원경이나 무전통신기나 이런 걸로 용어를 붙여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다섯 가지가 거기 시스템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업을, 인과를 다 무너뜨려야만이, 그 습을 다 놔야만이 이게 밝게 보인다 이겁니다. 밝게 보이면 뭐가 대두가 되느냐 하면 이 심안의 눈으로써 볼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천안통, 천체망원경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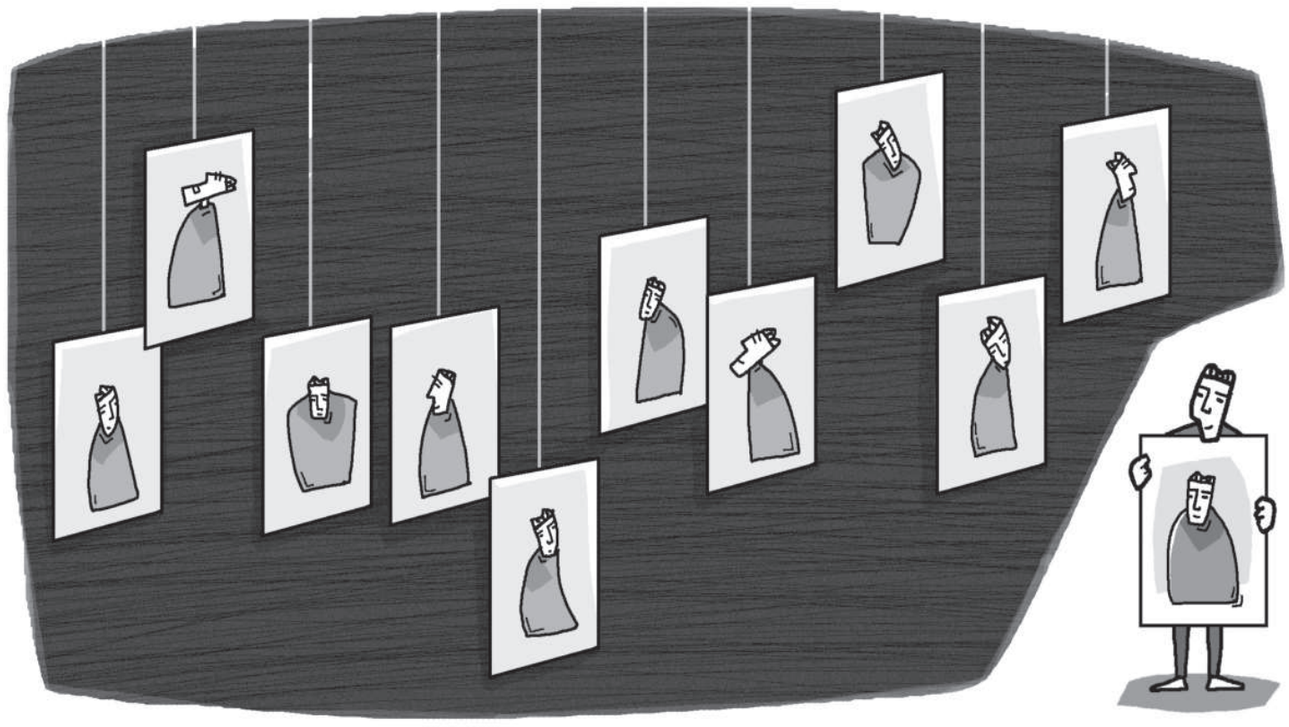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몸은 백 번 만 번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 19면에서 계속

으로 이것이 밝게 보인다 이겁니다. 밝게 보일 때에 이거를 본다고 해서 "나는 저 십 리 밖을 내다볼 수 있고, 저 다른 혹성을 내다볼 수 있으니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건 도가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가 있다고 해서 내 손이 정상적으로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건 병신이에요. 보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다음에 팩스라고 해도 됩니다.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족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요것도 거기에 붙어서 대두돼 있죠. 요것을 또, 두 가지를 다 안다고 해서, 이 손가락 두 개만 있다고 그래서 "아이구! 나는 뭐, 이만하면 됐어." 이러지 마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요거는 그릇을 비워서 밝게 나를 발견한 뒤에 체험하는 실험 도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보지 않고는 실험을 할 수 없고 듣지 않고는 실험을 할 수 없고, 남의 속을 알지 못하면 실험을 할 수가 없고 그런 것입니다. 함이 없이 가고 올 수 있어야만이 다니면서 실험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를 쓰기 위해서 다섯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기계 하나를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거기 부속품으로 다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그 부속품 하나가 이루어졌다고 기계가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안다고 그래서 다가 아니고, 또 천체 무전통신기를, 천이통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 가고 옴이 없이 간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 어떠한 재료죠. 이걸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남을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또는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거, 또는 모든 이 소리를 듣고 행하고 이래야만이, 실험하면서 체험하고 체험하면서 당당해지는 그런 자기의 중심이 선다 이거죠.

그다음에 컴퓨터에는 과거의 모든 것이 입력이 돼 있는데, 제일 시급한 게 컴퓨터에 앞서 입력된 것이 지금 현실에 나오는 거를 거기다 다시 놓는 것입니다. '거기서 밖에는 이걸 없앨 수 없고 거기서밖에는 이끌어 갈 수 없고 거기서밖에는 내가 나를 증명해 줄 수 없다.' 하고 거기다 다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부(父) 속에 자(子)가 들어 있고 자 속에 부가 들어 있다.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주인공밖에 없다는 거. 이 숙명통, 여기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 놓고 그렇게 가는 숙명통, 이걸 컴퓨터라고 합니다. 내가 말을 하다가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컴퓨터, 팩스 또 통신기, 또 뭡니까? 탐지기 또 망원경,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어디에 속해 있느냐. 마음, 그 지배인에 속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누진에 속해 있다. 누진은, 즉 말하자면 레이더망 중심에 있는, 내고 들이고, 소식을 안으로 전하고 바깥으로 전하고 중심을 지키면서 항상 돌아가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수시로 찰나찰나 들이고 내는 거를 연락하는 그러한 것이 누진입니다, 이걸 다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물질적인 자석이나,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자석은 자석대로 자석입니다. 아주 훌륭하죠. 물론 서독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지금 일본에서도 그렇고 뭐, 딴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 공사를 따내려고 애를 쓰는 나라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말입니다. 공중에 자석으로다가 그냥 쏜살같이 다니게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자력은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무량수와 같다. 그런 거와 같이 그런 자력만 쓸모가 있는 게 아니라 광력도 쓸모가 있는 거죠. 그 재료에 속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력이나 자력이나 전력, 통신력을 모두 두루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몸뚱이가 오븐과 같고 그 오븐에다 재료를 넣고 용탕을 만들어서 요리를 해서 모두, 때에 따라서는 이거 먹고 싶으면 이것 먹고 저거 먹고 싶으면 저거 해 먹고 하듯이 자유자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서 참선을 찾느냐, 참나를 발견하느냐 이겁니다. 참나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임을 발견하는 데에 있는 겁니다. 내 임을 발견치 못하면 그 임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내 마음에서 나를, 자와 부가 둘이 아니게 계합이 돼야만이, 바로 부처님의 속도 역대 조사들의 속도 전부 한자리 한 그 뜻, 생각만 해도 찰나에 들었다가 찰나에 나시고 찰나에 들었다가 찰나에 나시고 하는 그 나툼, 그것이 바로 자유자재해야 한다 이겁니다. 유구무구하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법'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겠죠.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몸은 백 번 만 번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돼지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팔고 내 성을 팔고 내 뼈다귀를 팔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서 이 우주 삼라만상이 모두가 내 자리 아님이 없고, 강당에 앉아 있으나 법당에 앉아 있으나 변소에 앉아 있으나 거기 내가 앉아 있기 때문에 참나는 거기 있으며 부처님도 거기 계신 겁니다.



언제나 평등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아무리 마구니라 할지라도 마구니라는 생각을 말고
모자란다는 생각을 마세요.
모든 것은 내 모자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 저 자리 따지고 이 몸 저 몸 따지고 이 상표 이 간판 따지고, 이 불교가 국한돼 있는 불교인 줄 알고 야단법석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불교든 풀 한 포기든 모두가 불교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요 교는 말씀이니, 좋은 말씀이니 어떤 사람이 그거 안 지닌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기 마음으로, 자기 소견으로 요렇게 매 놓고서는 자기가 옴쭉 못 하는 것이 소견이죠.

중생은 소견을 좋아하지만, 이랬다저랬다 하는 걸 좋아하지만 보살은 거기에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역대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고 보살 조사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은 살아 보니까 그렇기도 합니다. 또는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 보살은 버리지 않는데 중생은 그 죽는다 산다 하는 데에 그만 어지럽게 끄달리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죽는다 하면 바로 이 시간에 사는 날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보살은 산다 죽는다도 떠나죠.

여러분, 삼국지 보셨죠? 왜, 바람을 순응케 해서 동남풍을 불게 한 누구죠? 제갈공명이요.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이걸 말하다가 말고 이런 말을 합니다. 레이저 광선을 쬐어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자궁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모든 게 속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이 도리를 안다면 자작, 여기 이 친구들이 광력을 끌어서 광선으로써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거짓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체험을 해야죠.

이거는 불법이니까 절에 가서 절을 하고 좌선을 할 때에, 즉 말하자면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는 편안함이 있고 내가 좀 '아! 조용하게 좀 앉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야만이 앉아서 좌선을 하게 됩니다. 좌선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앉아서 할 때도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할 수 있고, 일어나도 일어난다는 생각도 없이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선을 한다고 하고 앉아 있으면 일어난다는 그런 생각이 앞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앉아 있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서 있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눕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변소에 가서 앉아 있든지…. 변소에 가서 앉아 있으면 조용해서 생각이 나는 그런 것도, 생각이 많이 나더라도 망상이라고 끊어 버리려고 생각마시고 '그저 나하고는 상관없어. 주인공이 생각나게 했으니까 주인공 알아서 해!' 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할 수도 있고 망상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망상이 나오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자유 아니야? 거기서밖엔 할 수 없으니까. 넘어지는 놈도 거기요, 일어나는 놈도 거기니까 말이야.

참 그 마음을 지혜로써 써야지 소견을 좁게 쓰면 항시 종종걸음을 걷게 되고 빨리 서둘러서 내가 깨치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빨리 서둘러서 깨치려고 애쓰지도 말고 안 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생활 속에서 그대로 여여하게 그대로 하는 게, 그대로 몽땅 그놈이 하는 거니까 무슨 거기에 이유가 붙을 이치가 있어야지, 응?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나쁘다 좋다 하기 이전에 나쁘다는 생각이 들면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 아니냐?' 하는 거죠. 또 좋게 했으면 '아휴, 감사하구나.'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거, 이 두 가지밖엔 없겠죠. 어떠한 일이 과거로부터, 인과로부터 닥친다 하더라도 '음, 과거에 입력이 된 거고 입력이 된 것도 네가 한 거니까 입력을 없애는 것도 네가 하는 거.' 하고 다 맡겨 놓고 '주인공!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 주는 것도 너밖엔 없다.' 하고 거기다가 놓고, 생활 속에서 용도에 따라서,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을 준 놈도 너니까 안 주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놓았을 때, 상대에서 나를 모략을 하고 들어올 때도 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나를 한번 돌아다보고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그 사람의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 둘이 아니니 당신밖에는 해결할 수 없어.' 할 때에 그 상대방의 마음이 스스로 녹아져 버리고 내 마음과 같이 착해지고 의리가 있게 되고 서로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싹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평등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상대를 대하고 아무리 마구니다 할지라도 마구니라는 생각을 말고 모자란다는 생각을 마세요. 모든 것은 내 모자랄 때 내 모습이요, 내가 나쁜 일을 할 때 내 모습이요, 지금만 내가 살았던 게 아닌 까닭이죠. 그럼으로써 가정에서도 자식이나 형제나 잘못됨이 있으면 모든 건 내 탓으로 돌리고 부드럽게 말을 해 주고 주인공에다 맡겨 놓는 그러한, 주인공에서밖에는 해결 못 한다는 그런 믿음을 진실하게 가질 수 있어야 형제하고도 자식하고도 똑바로 잘 나갈 수 있고 공부도 머리가 트여서 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뿌리를 돋워 주니까 뿌리가 썩지 않으니 가지가 썩지 않을 것이고 열매가 크게 열려서 무르익어서 만 가지 맛을 내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4월 8일 국외지원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인증 승려연수과정

2025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생활수행과 현대적 포교방안
- 화엄세계 : 수행과 담선
- 생활 속의 마음공부 – 치유와 공감
-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 커뮤니케이션과 포교
- 대승기신론과 한마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연수인증 : 조계종승려연수과정 (30점)
- 기 간 : 2025년 7월 17일(목) ~ 19일(토)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강 사 진 : 승단 전문강사진 – 청동스님 (동국대 불교학 박사 수료) 등
  재 가 교 수 진 – 이화행 교수 (동명대), 황수경 교수 (동국대) 등
- 교 육 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 인 원 : 40명 (선착순 마감)
- 문 의 : 031-470-3200/3201 (일, 월 휴무)
- 웹사이트: http://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㉟ 분노의 화살을 멈추게 한 부처님, 분노 시리즈 (8)

분노 제대로 보고 표현해야 관계 개선

"많이 좋아졌어요."

근황을 묻자, 환하게 웃는 상희(가명) 씨의 얼굴이 봄꽃보다 밝게 느껴졌다. 그녀는 분노 시리즈를 처음 적기 시작할 때 소개했던 내담자다. 당시 그녀는 집에 들어오는 아이에게 컵을 던지며 악을 쓰고 나가라고 소리쳤고, 이후 깊은 자책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몇 개월 동안의 상담 후에 많이 달라져 있었다. 불안한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고, 말하는 표정에서도 부드러운 미소가 보였다.

"화가 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화가 날 때 잠시 멈출 수 있게 되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내 감정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것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난날의 고통이 떠오른 듯, 상희 씨는 다시 울컥하며 말했다.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안아줬어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너에게 많이 잘못했어'라고 말해줬어요."

눈물 어린 사과 뒤에 건넨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도 아이는 밝게 웃었다고 했다. 상희 씨의 분노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정한 애착에서 비롯된 고통이었다. 그러나 아이를 향한 사랑이 치유의 원동력이 됐고, 그녀는 스스로 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분노 시리즈는 총 7차례에 걸쳐 다양한 분노의 형태를 다루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먼저 알아차리고 멈추는 연습,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이다. 분노의 유형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꾸준히 연습하면 분노 조절은 가능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제 분노 시리즈의 마지막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상희 씨는 불안정한 애착으로 인해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종종 분노에 휩싸였다. 그러나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녀를 변화로 이끌었고, 치유를 향한 강한 의지가 되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과거의 불안정한 애착을 극복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치유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변화 의지다. 상희 씨의 경우, 좀 더 좋은 엄마가 되고자 하는 진심이 분노를 진정시키는 감로수가 되었다. 그녀가 온전히 사랑을 주고받으며 관계의 안정감을 찾게 된 것은 강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상희 씨는 분노를 알아차리고 멈추며 자신의 마음을 통찰한 뒤, '표현'이라는 도구를 활용했다. 이것이 그녀가 얻은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이란 단순히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오해한다. 때때로 일부 상담 치유자들에게는 화가 나면 발산하라고 권유하며 몽둥이로 물건을 두드리거나 힘껏 패는 행동을 하게 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표현이 아니라 분출에 가깝다. 물론 분출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분출도 결국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표현을 하도록 돕는 도구들 가운데 하나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 위해 '소통' 필요
소통, 진실함과 안전함 속에서 표현해야
여법한 관계 위한 첫걸음, '분노' 체크

분노라는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통찰한 후에야 비로소 진짜 감정이 보인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정된 이후에도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이다. 사람들은 좀 더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위해 분노를 참거나 소통을 시도한다. 그러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분출이 아닌 적절한 '표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적절한 표현은 소통의 물꼬를 트고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건강한 표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진실함'과 '안전함'이다. 진실하게 마음을 전달해야 하고, 상대방이 그 진심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마음이 온전히 전달된다. 말로는 간단해 보여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분노는 종종 정서적인 고통을 덮어버리는 역할을 한다.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진짜 감정을 차단할 때 분노나 짜증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모는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거나 숙제를 하지 않을 때 화를 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걱정과 염려, 그리고 아이가 성실하게 자라주길 바라는 진심이 깔려 있다. 만약 "정말 걱정되고 염려돼. 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 갑갑해져서 화를 내게 돼"라고 진심을 표현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표현'이다.

또 다른 예를 본다. 한 남자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자 친구에게 비싼 선물을 준비했다. 하지만 여자 친구는 그의 거칠어진 손을 보고 "선물을 환불해야겠다"고 말했다. 남자는 자존심이 상해 선물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크게 다툰다. 그러나 만약 남자가 "내 선물을 기쁘게 받아주길 바랐는데, 환불하자고 하니 성의가 무시된 것 같았어"라고 진심을 전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분노 뒤에 감춰진 속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소통은 시작된다.

분노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며 언급했던 사냥꾼 꾹꾸따밋따가 떠오른다. 분노를 참지 못해 부처님께 화살을 겨누었던 꾹꾸따밋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활과 화살을 내려놓는다.

우리도 마음을 감추기 위해 사용하던 분노의 화살을 내려놓아야 한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따뜻한 관계로 가는 첫걸음은 분노를 제대로 바라보고 표현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건강 365

㊱ 춘곤증

춘곤증 잘 이겨내야 건강한 봄 맞는다

많은 눈과 잦은 추위로 유난히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기운이 완연하다. 최근 들어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스함에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는 춘곤증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눈꺼풀이 평소보다 더욱 무거워지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걸 몸소 느낀다. 기온이 오르고 환경이 변하면서 겨우내 쌓인 체내의 불균형으로 수면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피로감은 단순히 계절 탓이라기보다 몸의 기운이 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졸음, 무기력, 집중력 저하로 볼 수 있다. 춘곤증이 지속되면 밤에 잠을 못 이루게 되고, 반대로 이 불면증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 춘곤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수면 불균형을 어떻게 진단할까?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몸이 자연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하다고 본다. 춘곤증을 찾아오게 하는 봄을 살펴보자. 봄은 오행 이론에서 목(木)에 포함된다. 바야흐로 생명의 탄생과 성장의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다. 따라서, 겨울 동안 저장한 기운을 더 소모하며 기운이 충만하기에 영양공급이 필요하다. 봄은 또한 간(肝)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시기이다. 간은 기혈의 저장과 순환을 조절하는 핵심 장부이다.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혈이 부족하거나(肝血不足), 기운이 막히거나(肝氣鬱結), 열이 치솟아(肝火上炎)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봄은 오행 중 '木'에 해당돼
'간'의 기운이 왕성한 시기
간혈부족 등에 수면 불균형
매실 등 신맛 나는 음식으로
간의 기운 증장하면 도움 돼



간혈부족이면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잠에서 깨고 꿈을 많이 꾸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또는 피부가 창백하며 어지럽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자주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간기울결은 간의 기운이 정체되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생각이 많아져 잠들기에 어렵다. 여러모로 생활이 힘든 요즘, 많은 이들이 스트레스, 과로, 근심으로 불면을 호소한다. 간화상염은 간의 기운이 막힌 것에 더하여 화(火)로 변하여 열이 위로 치솟아 얼굴이 붉어지거나 입이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증상을 회복하는 데 효과 있는 방법을 권한다면, 가정에서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저녁에 족욕이나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면 좋다. 간의 기운을 북돋우고 조절해 주는 신맛이 나는 매실, 레몬 등을 매일 섭취해 주고 실내에만 머물기보다는 가벼운 산책과 운동으로 체내 순환을 조절해 본다. 봄에 나는 제철 과일이나 나물을 충분히 섭취하여 기운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도 필요하다.

아무리 춘곤증이 몰려와도 낮잠을 심하게 자지 않도록 한다. 게다가,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잠에 들곤 하는데, 잠드는 공간, 침대에서는 오직 수면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혹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느라 수면 시간이 모자라도 아침에는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한다.

밤에 잠들지 못할까 봐 너무 걱정하는 것도 수면에 방해가 될 뿐이다. 짧은 시간 동안 겪는 불면은 요즘 사람들에게 흔히 보이는 증상이어서 가볍게 넘기기 쉽다. 하지만 불면 증상이 지속되다 보면 우울, 불안, 두통 등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들이 동반될 가능성이 커진다. 증상이 심해지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한의학 치료는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한방에서는 백회, 신문 등에 침 치료, 가감소합향원과 같이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한약을 활용하며 뜸 치료로 혈액 순환을 돕고 상담 치료 역시 병행하고 있다.

춘곤증은 병이 아니라 몸이 계절의 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지나친 걱정보다는 '아, 또 봄이 왔구나'하며 받아들이고 자연 치유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한다면 한결 마음이 편해져 기쁜 마음으로 봄을 맞이할 것이다.



구병수 동국대일산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전법 일기

10만배 회향한 미국인 거사님
술 끊고 스스로를 변화시켰다

서미사(미국 시애틀 소재) 보살님 몇 분이 용맹정진을 원하시며 삼천배 철야 기도를 한번이라도 해보자고 제안해 주셨다. 서미사는 시애틀 근교 타코마시에 위치한 조계종 사찰로, 2년 전 열반한 주지 일면 스님께서 40여 년 전에 큰 원력으로 세운 곳이다. 스님은 국제포교사인 저를 법사로 대우해 주셨다. 스님이 출타 중일 때는 필자가 목탁을 치며 일요법회를 집전하고, 월례 철야 대다라니 108독 기도를 이끌었다.

철야 기도를 원하는 보살님들과 상의하여 토요일 저녁 6시에 대웅전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3000배 철야 정진 기도 계획을 세우고 나니, 법당 안에서 혼자 앉아 있던 미국인 거사님과 다음 주 철야 기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좋다"고 답했다. 이 거사님은 일요법회에 누구와도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한 성품이었는데, 항상 검은 운동복만 입어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아 보였다.

3000배 철야 기도 당일이 새벽 회향 후에 공양할 콩나물죽을 준비해 갔다. 주지스님과 오후 6시에 입재를 하고, 이후에는 필자가 죽비를 치며 3000배를 새벽 4시경까지 이어갔다. 준비한 죽 공양을 위해 모두 요사채로 왔으나, 미국인 거사님만 보이지 않았다.

다음 주 일요법회에 온 미국인 거사님은 "자신은 2000배도 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필자는 미국인 거사님에게 정견 스님의 '절 잘하는 법'을 알려드렸다. 그 후 미국인 거사님은 평소 왕래가 있던 베트남 사찰의 노스님께 삼천배를 끝내지 못한 심정을 이야기했더니, 노스님은 업을 맑히려면 3000배뿐만 아니라 10만배를 마쳐야 업이 녹아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셨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이후, 미국인 거사님은 10만배를 몇 년에 걸쳐 회향했다.

미국인 거사님은 사찰에 다니기 전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이 있었지만, 번번히 직업도 없이 술과 담배 중독으로 지냈다. 견디기 힘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수년간 아이들 얼굴도 보지 못했다.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 괴로워하며 살던 중, 우연히 〈명상(Meditation)〉이라는 책을 보게 되어 끌려 읽기 시작했다. 책 속에서 소개하는 명상법대로 명상을 하다 보니 자연히 술이 맛이 없어지고, 담배 냄새도 싫어지며 법당 안에 앉아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하고 고통이 서서히 줄어들어 서미사에 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몇 년 동안 10만배를 했다. 동시에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여 전문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여 시애틀에서 제일 큰 병원에 취업했다. 또한 근사한 집도 마련했다. 집 정원에는 관세음보살상을 모시고, 거실은 법당으로 꾸며 불상과 불단을 설치했다.

한때는 한국에 와서 스님이 되려고 했으나 병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수행이라며 스님 같은 생활을 했다. 미국인 거사님의 살아온 인생을 보면 불보살님의 가피를 굳게 믿게 된다.



조정희
국제포교사, 선명상 전문 트레이너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⑭ 대화법 특강: 존중의 햇살(1)

사랑하기 위해선 '경청' 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화법 특강입니다. 대화를 하는 것도 배워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수많은 대화를 나누어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 대화라는 것이 저절로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자와 소가 서로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습니다. 사자는 날마다 신선한 고기를 잡아 소에게 주었고, 소는 날마다 신선한 풀을 뜯어 사자에게 주었습니다. 아무리 날이 덥고 짓궂어도,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이들은 정말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할수록 더 어긋나기만 하고 더 외롭다고 말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사랑과 집착의 구분'입니다. 쉽게 말해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고, '집착'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한다면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줍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벌어지는 갈등 대부분은 부모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 괴로움과 부모님의 소중한 선물을 거부하는 데서 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동안 많은 학부모 강의를 통해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설명했지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집착이 오히려 사랑보다 더 사랑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해야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傾) 들어야(聽) 합니다. 이렇게 상대가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존중'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나의 마음에 공감해 줄 때 우리는 크게 위안을 얻고 대접받는 느낌이 듭니다. 존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존중을 경험할 때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옵니다. 애들이랑 선생님들이 다 자기만 미워한다고 오열합니다. 조금 욕하고 때린 거 가지고 자기를 왕따시킨다며 억울해 합니다. 이때 엄마는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과연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공감하며, 사랑과 경청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행동과 감정은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엄마 손을 떨치고 달리다 넘어진 아기는 먼저 달래주고 상처를 치료해 준 다음에 조심히 걷도록 다시 안내합니다. "그러면 다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소리쳐봤자, 엄마도 힘들고 아기도 더 자지러지게 울어댈 뿐입니다. 감정은 옳고 그름이라는 도덕적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그 자체로 존중의 대상입니다. 뻔뻔함과 적반하장의 감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그냥 그렇게 타고난 정신의 육체일 뿐입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의 문제행동과 감정을 동일시할 때 갈등은 영원히 평행선을 달립니다.

모든 문제행동은 그의 숨은 욕구를 발견하는 단서일 뿐입니다.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존중'의 의미를 알 때 우리 마음은 따뜻한 햇살이 되어 그를 비춥니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출가, 더 깊이 세상을 보듬는 길

최근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큐ON'에서 방영된 '봉녕사 수행일기'를 봤다. 봉녕사 수행자들의 출가 생활을 담은 내용이었는데, 무엇보다 출가한 스님들의 가족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가족 템플스테이'에서 부모님들은 스님이 생활하는 공간을 둘러보고, 함께 예불을 올리며 사찰에서의 삶을 직접 체험했다.

그리고 한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우리 아이가 좋은 길을 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게 됐다."

이 한 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출가는 흔히 세속과의 단절로 여겨진다. 특히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출가는 마치 영원한 이별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출가가 세속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행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선택임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출가자가 삭발하고 사찰에 들어가면, 가족과의 접점이 거의 없었다. 그저 남겨진 가족들은 '절에서 잘 지내겠거니'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다. 그러나 가족이 출가자의 삶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갖는다면 출가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 출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해를 통해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출가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강해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출가는 점점 더 먼 길처럼 느껴진다. 많은 이가 출가를 결심하지만, 부모님의 걱정과 반대로 결국 뜻을 접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봉녕사의 시도는 불교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가족의 반대'가 걸림돌이 된다면 가족이 출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출가는 결코 세상을 등지는 길이 아니라, 더 큰 세상을 보듬는 길이다. 출가자의 삶이 수행과 포교의 길이라면, 가족의 이해를 돕는 것도 그 수행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산감을 기다리며
〈山監〉

현불논단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전국의 산지에서 발생한 산불에 제16교구본사이자 천년고찰인 고운사가 소실됐다. 고운사뿐만이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산불에 의성 운람사도 전각이 전소됐고, 그 외에도 경북과 경남의 산불 확산 지역에 위치한 여러 전통사찰들이 여전히 산불로 인한 재난 위기에 처해 있다.

산불이 사찰을 전소시킨 사례는 역사 기록에도 자주 등장한다. 다만 화재로 인한 소실 기록의 대부분은 조선시대에 집중돼 있다.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도 사찰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조선시대 사찰의 기록에 화재로 인한 재난 기록이 많다. 그 이전 시대의 사찰들이 대부분 도성 안이나 시가지에 있었던 것과 달리, 조선시대에는 도성 안의 사찰이나 지방 중심지에 있었던 사찰들을 대부분 폐사했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자연스럽게 산중의 큰 사찰과 부근의 사암들을 중심으로 불교 전통이 이어졌다. 하지만 조선 중기나 후기의 산중 사찰들은 산간에 있다는 지리적 한계 때문에 쉽게 산불에 노출됐다. 하지만 실화(失火)로 인한 소실은 예상보다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는 화전민들의 화전 개척 과정에서 일어난 실화도 산불의 원인이 되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상 조선시대의 사찰들은 화재에 취약한 점이 많았다.

결국 대부분의 사찰은 화재로 인한 소실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여러 비책을 강구하곤 했다. 해인사에서는 단오날에 사찰 안팎에 소금을

영남 산불로 여러 고찰들 피해
조선代 사찰 산감 둬 관리케 해
산사·산림, 한 묶음…보존 터전

비치하고 매화산 남산제일봉에 소금단지를 묻는 의례를 벌써 200년 넘게 행하고 있다. 통도사 역시 매년 단오에 각 전각 지붕 밑 평방 위에 '염불화방지병(念不火防之甁)'이라는 이름의 소금단지를 올려서 화재를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새기고 있다.

단순히 의례이고 상징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화재에 약한 산지 사찰의 특성상 적어도 사람의 실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마음을 절 안의 대중 모두에게 되새기는 역할을 했다.

그런 정성을 알고 있었기에 조선의 왕실은 사찰 주변의 산림을 관리하고 가꾸고 보존하는 역할을 스님들에게 맡겼고, 스님들은 산감(山監)이라는 직분을 따로 두어서 관리와 보존의 소임을 담당했다. 얼핏 보면 단순히 사찰과 사찰 주변 산림의 관리와 보존인 것으로만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산이란 전통적으로 기대고 의지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그냥 아늑해서가 아니다. 흉년이 들면 먹거리를 내어주고, 추위가 들면 땔거리를 내어주는 삶의 밑천을 내어주는 곳이 산이었기 때문이다. 그 산이, 사찰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스님들을 품고 있는 산이 온전해야만 인근의 사람들도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고, 추위를 면할 수 있었다. 결국 스님들이 살아가는 사찰 자체가 산감(山監)이었던 셈이다.

산중에 있는 전통사찰들은 그 주변의 산림과 한 묶음이다. 그리고 그 한 묶음이 스님들에 의해 관리되고 보존됨으로써 풀이며 나무며 짐승이며 사람에 이르기까지 함께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었다. 오늘 그 소중한 삶의 터전 한 자락이 무너지고 있다. 그곳에 있는 주민들과 사찰 그리고 스님들의 수행 터전만은 아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이 함께 기억하고 또 가꾸고 보존해야 할 터전이다. 그 소중한 터전이 오롯이 본래 모습을 되찾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사회적 연대는 치유의 힘

세간과 출세간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요즘 우리 사회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내란 혐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마음에 큰 동요가 일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 또한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안정을 이루는 길이다.

아이가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 속에서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때, 그 마음에는 편안함과 신뢰가 자리 잡게 된다. 반대로, 부모의 잦은 다툼이나 경제적 어려움, 혹은 학대가 있는 환경에서는 아이가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자라나기 쉽다.

어린아이는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부모(혹은 양육자)가 그 감정을 받아주고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불안과 좌절을 어머니가 품어주고, 소화하여 다시 부드럽게 돌려주는 과정이 반복될 때, 아이는 세상은 안전한 곳이며, 자신은 존재만으로도 귀한 존재라는 믿음을 키워나간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안정은 단지 개인적인 경험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회적 환경과 깊이 연결돼 있으며, 안정된 공동체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다. 사회가 안정되고 신뢰가 두터우면 개인은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갖지만,

사회 혼란할수록 무력감 높아져
서로에 의지처 되는 분위기 필요
종교공동체 등 연결의 장 마련을

사회가 불안정해질수록 위축되거나 의존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다.

정치적 혼란이 길어질수록 국민은 불안, 분노, 무력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를 잡는다.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공동체의 유대가 약해지면, 우리의 정신적 회복력도 함께 떨어지게 된다. 이런 감정이 계속될 때, 우리는 일상에서 기쁨을 찾기 어려워지고,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더해지며 생산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마음의 평온을 회복해 나가는 일이다.

개인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 나누거나, 글쓰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더불어, 우리 사회 전체가 서로를 보듬고 지지하며, 함께 걸어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와 지역 사회는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종교·명상공동체나 지역 커뮤니티는 사람들과 연결하는 장을 마련하자.

부처님께서는 〈자애의 경〉에서 "모든 님은 행복하여지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바라지 않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서로를 감싸는 따뜻한 울타리, 함께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대한민국은 더 안전한 쉼터가 될 수 있다. 작은 연등 하나를 밝히듯, 서로를 위한 온기를 더해 나아가자!

社 說

산불 피해 지원·복구에 힘 모으자

지난 3월 22일 성묘객의 실화로 확산된 영남지역 산불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비라도 오면 좋으련만, 날씨마저 도와주질 않고 있다.

이번 산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월 27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산불의 영향구역은 3만3204ha로, 2000년 강원도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2만3794ha)을 넘어섰다. 3월 27일 오후 2시 기준 인명 피해는 사망 27명, 중상 8명, 경상 22명 등 총 57명으로 집계됐다.

사찰의 피해도 잇달았다. 무엇보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이자 천년고찰인 의성 고운사의 전소 소식은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

전각 30동 중 21동이 소실돼 완전 전소는 아니었지만 보물로 지정된 가연루, 연수전이 모두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대웅보전이 화마를 피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산불 피해가 확산되자 불교계는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모금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본지와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은 공동으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더프라미스 등은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과 모금을 병행 중이다.

재난 속에 빛나는 것은 구성원 간의 연대다. 서로에게 의지처가 될 수 있어야 지금의 고난을 넘어갈 수 있다. 영남 산불의 조속한 종식을 기원하며, 피해 지역이 안정된 일상을 찾을 수 있길 기원한다.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가치 충분하다

한국불교만의 생명존중사상이 담긴 식문화인 '사찰음식'이 신규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국가유산청은 3월 21일 사찰음식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 1달이 남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정은 확실시 되어 보인다.

사찰음식은 '불교의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으로, 승려들의 일상적인 수행식과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식사법을 포괄한다. 특히 불살생의 불교사상에 기초하여 육류와 생선, 오신채(마늘·파·부추·달래·흥거) 없이 조리하는 채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사찰음식은 불교 전래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식문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

사찰음식은 단순한 채식음식이 아니다. 불교의 불살생 계율과 생명 존중, 절제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한 것이 사찰음식이다. 이는 한국불교만의 고유한 식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 사찰음식이 담아내고 있는 생명존중과 절제의 철학은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할 가치이기도 하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가족이나 주한대사 부인들이 사찰음식을 체험하고 연신 '원더풀'을 외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우리 국민들의 심신건강 증진 및 한식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제80차 중앙종회 성료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중앙종회(종회의장 도정 스님)는 3월 24일 서울 일붕선원에서 제80차 중앙종회를 열고 2024년 결산보고 등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알립니다.

불기 2569년(2025) 4월 2일
일붕선교종 종회의장 도정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4월 2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4월 2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국제불교박람회
현장할인 이벤트
4월 3일(목)~6일(일)

어싱 Earthing 슈즈 특별전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접지 슈즈



◀베이지



블랙▶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어싱 샤모아 슈즈

어싱 샤모아를 새로 출시합니다.

샤모아 (chamois) 는 다공성 가죽의 일종으로, 유럽의 샤모아 산양의 가죽에서 유래된 것.
오늘날에는 지역 구별없이 산양의 가죽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매우 유연하고, 의복용, 장갑용 사용되기도 하며, 세탁해도 유연성이 변화되지 않고
더운 여름에도 땀이 덜 차는 장점이 있다.



판매가 80,000원 사계절용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4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